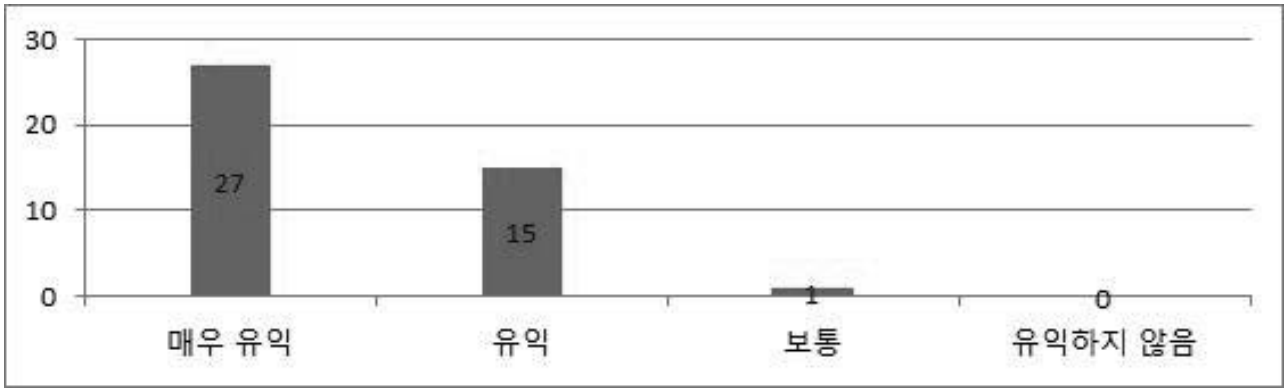
[부록 2]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 설문(의견) 조사 결과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 설문조사 결과

1. 조사기간 :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일 (5월 30일)
2. 조사방법 : 회의장 현장 설문조사
3. 조사대상 : 서울 회의장 참가자 (170명)
4. 응답자수 : 42명

■ 회의 내용에 대한 종합 평가



■ 유익했다면 그 이유는?

[한국측 참가자]

- 유명인사의 한일 경제계 관련, 관점과 통찰력에 대해 의견과 대안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2)
- 한일 양국의 새로운 협업과 관계 증진을 기대한다.
- 기조연설 내용이 좋았으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발표 내용의 논의였다. (2)
- 세계정세를 떠나 **한일간 양국 협력을 위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관계개선을 위해 힘쓰는 활동**에 힘찬 응원을 보낸다.
- 양국 협력을 위한 한일 간 경제인회의 활동에 함께할 수 있어서 좋았다.
- 세계 정세의 흐름속에 이웃하는 나라와 상호 협력 발전해 나가려는 모습이 좋았다.
- 궁금했던 내용에 대해 이해를 하는 시간이였으며, 테마별 발표내용에 매우 공감하였다.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
- **한일 경제계 협력방안과 미래 전략에 있어서의 비전을 확인**할 수 있었다.(2)
- 과제 인식이 시의적절하였으며, 발표내용도 좋았다. (2)

- 최신정보, 이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미래를 생각하고 한일관계에서 상호 배울 수 있는 큰 점들이 있어 앞으로의 **기업 경영 방향에 조금은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가졌다.
- 한일 경제인들이 서로 협력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였다.
- 불활실한 시대에 한일 관계 개선과 미래 지향적 협의를 위한 회의를 통해 소통하고, 구자열 회장님의 한일협력 방향을「정원」에 비유하여 설명해 주신 것은 매우 유익하였다.
- 인재플랫폼구축에 대한 정보가 유익하였으며, 다양한 정보 습득과 경제인과의 교류가 가능하였다.
- 양국의 공감을 이끌어 내려는 노력이 엿보였다.
- 지난 2년간 침체 및 대면불가에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한일경제협력을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해 온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 (2)
- 1969년 회의가 시작되고, 한 번도 빠짐없이 개최되고 있는 것은 한일 간 협력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한일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를 열었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추구라는 공통의 가치를 추구하는 동반자 관계로 인식.
- 동 회의가 한일 관계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코로나19 중에도 회의를 순조롭게 잘 진행한 것에 대해서 감사.
- **한일 양국 경제인 간에 상호 정보를 교환하며, 이를 통하여 좋은 관계를 형성시켜 상호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한일 관계 개선에 큰 공헌을 기대한다. 과거 5년간 최악이었던 관계의 개선을 기대하고, 양국 경제적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
- 한일 양국의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세계적인 코로나19팬데믹과 공급망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의견 교환과 집단지성을 형성을 위한 노력과 아메노모리 호슈와 같은 성심(성신외교)가 매우 인상적이였다.

[일본측 참가자]

- **한일 양국의 공통 과제 (역사, 자원, 인재) 인식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3)
- 향후 GVC에 대한 이해에 큰 참고가 되었다.
- 한일간의 냉기류가 흐르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많았다.
- **발표내용에서 구체적인 한일협력의 제안**이 있었다.
- 한일 양국의 폭넓은 경제활동에 연관되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 유익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 의견 없음.

■ 평가의견

[한국측 참가자]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여러 각계의견을 듣고 생각해 볼 수 있어 뜻 깊었고, 매년 성황리에 개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경제발전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협력 방안과 상호신뢰, 상호존중하는 깊은 내용이 담긴 기조연설 등 파트너십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다.
- **한일경제인간의 선의의 경쟁과 협력방안을 모색하여 좀더 나은 미래발전에 발돋음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애쓰는 모든분들이 있어 경제인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
- 상호 보완적인 선순환의 흐름에 순응하고 당면한 현안을 서로 직시하고 다변화되는 국제 사회의 요구와 양국간 지속적인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좋은 회의였다.
- 전반적으로 **한일협력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 공동성명에 반도체 등 공급망 안정화를 포함시켰으면, 좋았을 것이다.
- **에너지 공동개발에 대한 정책 금융 등 양국 정부 지원에 대한 보다 강한 언급**이 있었으며 좋았을 것이다.
- 양국의 기조연설에서 한일관계 정상화와 경제, 문화, 교류에 대한 강한 열망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관계개선과 교류 등 발표내용 모두 향후 한일협력의 좋은 모델로 제시되었으면 좋겠다.
- 한일 간 기업인 교류가 정상화되어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 하루 빨리 한일 경제 협력이 재건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 아베노모리 호슈 정신을 듣고 과연 일본인의 성심과 풀뿌리 교류를 통한 역사적 교류로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밸류 체인의 변화, 한일공동에너지 사업의 실현을 위해서 한일경제가 유사성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므로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한일 관계를 새롭게 전개할 필요가 있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그리고, 민간협의체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망**한다. 정치적인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는 민간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 새로운 한일 관계전개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여, 많은 경제인이 참석하였다.

- 기존연설 및 내빈연설도 충실한 내용이 많았으며, 글로벌 밸류 체인, 환경문제, 인력문제 등 적절한 논의 테마였다고 생각한다.
- 그동안 54회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시도와 다양한 협력이 있었다. 이제 양국이 실효적 관점에서 소재부품 공급망 협력, 청년인재육성 및 교류, 에너지 공동대응 등 실천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 금번 주제 및 발표는 매우 제한적이였음. **IPEF, RCEP, CPTPP의 세부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동아시아 및 인도-태평양지역의 대변화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쉬움.** 이느 매우 협소한 인식이고, 한일관계의 장기적 전략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 탄소중립, 에너지안보, 인적교류 등 공동관심사에 대한 한일 간 협력 방안 도출이 의미 있었다.
- **경제교류, 인적교류, 문화교류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가 언급되었고, 청소년 교류, 지역교류 확대에 관한 상호보안 방안이 제시**되었다고 생각한다.
- 제3국에서의 프로젝트 수행으로 한일 관계 위상 확립
- 한일 양국의 변화를 보여주는 회의였다고 생각하며, 양국의 새 정권 출범을 계기로 시의적절한 주제로 논의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 단장인사를 통하여 양국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요즘 같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 카이스트 이경상 교수의 현재 공급망의 위기와 탈중국러시 현상(리쇼어링)의 분석과 진단이 눈에 띄었고, 또한 사토 이사장의 저탄소 실현을 위한 한일 에너지 공동사업이라는 청사진과 빅비처를 제시, 관련 기업들이 많은 통찰력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일본측 참가자]

- 온라인 개최에도 많은 참가자가 참여하였다.
- 다음 회의는 오프라인으로 개최하여 한일 경제인의 실질적인 교류가 되기를 기대한다.
- 카이스트의 교수님과 SJC의 사토 님의 발표를 듣고 앞으로의 한일 양국에 있어서의 산업협력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 매번 느끼지만, 회의가 시작하기 전에 언론에게 과거형으로 뉴스가 보도되는 것은 하지 말아 주었으면 좋겠다.
- 연장자인 회의 참가자분들의 발언은 역사와 정치에 관련되는 내용이 중심이었으며, 현역인 회의 참가자분들의 발언은 앞으로의 비즈니스와 관련된 내용 중심이었다.
- 한일협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다고 생각되며, 행동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본회의가 향후, 실질적인 한일 경제계의 협력 재개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공동성명 내용에는 크게 공감한다. **다음 단계로서 구체적으로 의론하며 실행 가능한 장으로서 한일경제인회의를 활용**하였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경제인의 이름으로 양국 정부에 대한 구체적인 제언 등을 하는 것은 어떨지?
- 한국측 회의장에 공석이 눈에 띄게 있었다는 점이 좀 아쉬웠다.
- 의견교환 중에 규칙존중에 관한 것과 저탄소사회의 실현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향후, 중요해지는 이러한 사항들을 한일경제인회의를 계기로 자주 깊이 있는 토론을 기대하고, 교류도 확대되기를 바란다.

■ 제언 건의

- 기조연설 시간을 줄이고, 내빈인사 수를 줄였으면 좋겠다.
- **15분간 발표시간을 보다 늘려 여유로운 시간 속에 강의**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 질의응답 시간이 너무 짧아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다.
- 한일경제인회의에서 **매년 동일한 제목의 정보가 지속적으로 제공되면 좋을 듯**하다. 예로, 지난 한 해 동안 '한일경제협력'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 필요하면 설문조사 등을 실시 (한일경제협력지수공표)
- 회의자료를 보기 편하게 바꿔줘서 좋았다. (컬러인쇄)
- 한일 교류와 관련된 내용이 잘 반영되면 좋겠다.
- 인재플랫폼을 양국의 공적인 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면 좋겠다. (예: 현재 양국의 산업기술협력재단을 공동개발, 공동운영기관으로 선정하고 양국의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가 바람직함)
- 오찬회 후, 회의시간까지의 남은 시간 활용(교류 등)을 위해 음료(커피) 제공을 희망한다.

■ 공동성명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내용 ※ 회의개최 전 사전조사 내용

- 한일 고등학생 및 대학생 교류 활성화 (2)
- 한일간 협력 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요망
- 국민의 안정과 시대의 소명에 따라 더욱더 많은 민간 교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인식 변화는 나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사는 길은 서로 상호 협력 간에 이해의 폭을 넓히고 상호 간 교류증진에 노력을 해야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

- 정치적 형태를 벗어나 서로 좋은 제품을 개발하여 상호 교류를 통해서 보다 나은 미래를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우리 중소기업은 멈춰있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속에 살아있는 기업으로 남고 싶다. 이에 더 많은 교류와 협력방안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새로운 정부를 맞이하여 그동안 소원했던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작년 회의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대로 한일간 취업박람회라도 개최하여 한국의 우수한 IT인력이 일본에 진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 한일 미래투자 협력 파트너쉽 구축
- 지역내 및 글로벌 서플라이체인 및 자원, 에너지 공급 안정화 위한 투자 협력
-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하면서 미래 산업을 창조하는 이노베이션 투자 협력
- 탈 탄소화 산업협력 및 글로벌 탈 탄소 산업 공급망 구축 협력
- 한일 양국 간 한일경제인회의 참석 업체를 중심으로 교류 및 무역을 활성화하여 상호 건전한 관계 형성 및 경제 발전을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
- 산업기술 및 과학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대한 기초 연구 추진
- 21세기 기후변화, 무역환경 및 지정학적 환경변화로 인하여 다자주의에 의한 지역 및 국가 간 협력체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 특히, 글로벌 정치경제에서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으로 인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인하여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간 대립 구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경제 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다.
- 따라서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한일 협력관계는 새롭게 변화하는 글로벌 정치경제 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는 긴밀하고 지속적인 한일경제협력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리더십**을 강화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하여 한일 양국 일반 우편이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 된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일반 보통 우편이 재개될 수 있도록 양국에 부탁드린다.
- 한국의 아포피스 소행성 탐사 계획의 예비 타당성 조사 돌입 등 전격적인 우주 탐사 시대에 돌입하고 있다. 소행성 탐사 분야에서 세계 TOP의 기술력을 보유한 **일본 우주 분야와의 협력을 계기로 미래 새로운 스테이지의 협력 관계를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이 관련 우주 산업계를 중심으로 전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한일 관계는 정부도 중요하지만, 기업과 민간교류도 중요하다.
-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분야별 교류단체를 한일경제인협회에서 총괄하여 지원하는 system이 있었으면 한다. 경제인 교류는 필수적 요소이기 때문에 분야별 단체별 직간접교류 활성화가 필요하다. 정부의 간섭없이 지원해주면 한일 관계도 좋아지리라 생각한다.

- 한일 관계 발전의 힘은 교류에서 시작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많은 교류를 희망한다.
- 경제와 정치는 불가분의 관계이나, 양국 경제인이 함께 발전하고자 하려면, 정치와 경제를 나누어 경제인의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는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예 : 경제인의 모임을 분야별로 저변화, 실질화, 다양화 한다.)
- 양국 중소업체가 연합하여 상품개발, 시장개발, 인재개발을 통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개발하여, 이를 세계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망한다.
- **기후변화에 공동대응을 위한 재난 관련 기술협력 등 나은 미래를 위한 한일협력 강화**는 필수

[부록 3]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 프레젠테이션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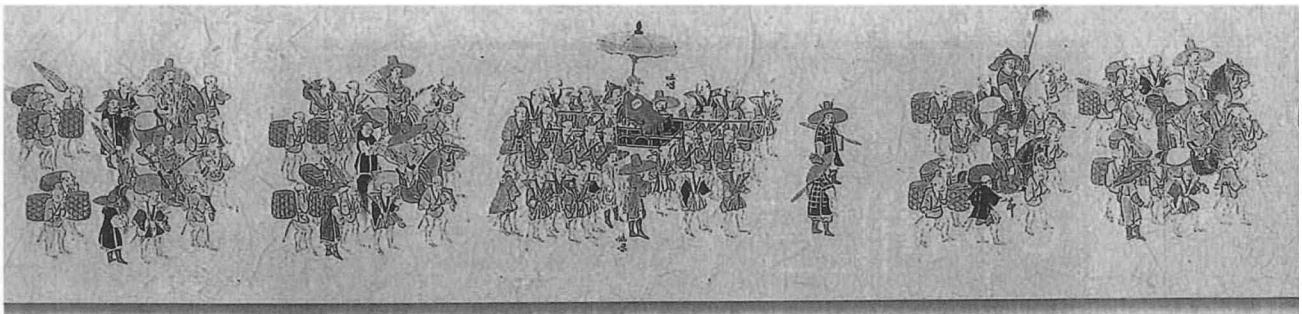
300년전 조선과의 우호에 생애를 바친 일본인

(300年前 朝鮮との友好に尽した日本人)

아메모리 호-슈

雨森芳洲





조선과 일본과 조선통신사

朝鮮と日本と朝鮮通信使

조선과 일본은, 오랜 옛적부터 이웃나라로서 외교와 무역을 하여왔다.

15 세기의 전반에는, 좋은 관계와 무역을 유지하기 위해, 양국의 사절단이 오가고 하였다. 그러나, 1592 년과 1598 년에, 豊臣秀吉(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 의해 조선이 큰 피해를 입자, 양국의 관계도 그때까지의 우호친선의 관계가 악화되어 회부할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豊臣秀吉의 사망후 새로운 지배자가 된 德川家康(도꾸가와 이에야스)는, 서울을 江戶(에도:東京)로 옮겨 정치를 하며, 조선과의 평화적인 관계와, 조선의 사절인 「조선통신사」의 재개를 원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1607 년, 다시 조선으로부터 400 명의 사절단이 일본을 방문케되었고, 그로부터 약 200 년간을 매회 500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적어도 5 개월에서 8 개월이나 걸리는데도 열두번이나 조선통신사가 일본을 방문하였다.

朝鮮と日本は、古くから隣の国として外交や貿易が行われてきました。15世紀の前半には、良好な関係や貿易を維持するため、お互いの使節団を派遣していました。しかし1592年と1598年、豊臣秀吉の壬辰倭乱と丁酉再乱によって朝鮮は大きな被害を受け、両国の関係もそれまでの友好親善の関係を回復不可能にするものでした。

豊臣秀吉のあと、新しい支配者となった徳川家康は、江戸（東京）で政治を行い、朝鮮との平和的な関係と、朝鮮からの使節である「朝鮮通信使」の再開を望みました。そして1607年、再び朝鮮から400人の使節団が日本を訪れることになり、それから約200年間に毎回500人もの人たちが5ヶ月から8ヶ月もかけ 12回も朝鮮通信使として日本を訪れました。

부산에서 조선어를 배운 雨森芳洲

釜山で朝鮮語を学んだ雨森芳洲

당시 조선과의 외교에서 일본측의 창구는, 조선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의 섬 「對馬(쓰시마:대마도)」였다. 對馬에서는 조선과 외교와 무역을 하기위해, 우수한 학자가 필요했다.

그리하여 외국에 관심이 많았던 雨森芳洲(1668-1755 年)는 對馬에 근무하며, 조선과의 외교와 무역의 직책을 맡았다.

雨森芳洲는, 일본에서 가장 큰 호수인 琵琶湖(비와꼬)가 있는 近江(滋賀縣:시가켕)의 출신으로, 어린 시절부터 학문에 힘써 왔다.

26 세 때 對馬에서 근무하던 雨森芳洲는, 부산에 있는 「왜관」이란 일본의 공관에 여러 차례 들러서, 그곳에서 3 년간 조선을 리해하기에 힘쓰며, 조선어를 공부하여 조선어를 습득하였고, 그후 조선과의 외교에 생애를 바쳤다.

そのころ朝鮮と日本の外交の日本側の窓口は、朝鮮に最も近い日本の島「対馬」でした。対馬では朝鮮と外交や貿易を行うためには、優れた学者が必要でした。そこで外国に関心の高かった雨森芳洲（1668−1755年）は対馬に勤めて、朝鮮との外交・貿易の職につきました。雨森芳洲は、日本で一番大きな湖である琵琶湖のある近江（滋賀県）の出身です。子どものころから学問に励んでいました。26歳のときに対馬に勤めた雨森芳洲は、釜山にあった「倭館」という日本の公館へ何回も渡り、ここで3年間朝鮮への理解を深めるとともに、朝鮮語を勉強して朝鮮語を習得しました。そしてその後、朝鮮との外交に生涯尽くしました。





조선통신사를 맞은「성심 외교」

朝鮮通信使を迎えて「誠信外交」

당시, 일본에서 실제로 조선에 건너온 사람이나, 조선어를 할 수 있는 학자는 雨森芳洲밖에 없었다. 그 雨森芳洲가 가장 활약한 것은, 1711 년과 1719 년에 조선통신사가 일본을 방문한 때였다.

사절단을 맞게 되면、對馬부터 江戸까지 안내하면서、교섭이나 조정에 힘쓰며, 외교문장을 마무리 짓고, 시문의 교환 등을 도우며, 사절의 고관과 함께 먼 여행을 했다. 이런 일을 통하여 조선사람들은, 雨森芳洲를 「日本에서 우뚝 뛰어난 사람」으로 존경하였다.

雨森芳洲는,「나라와 나라는 대등하다」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상대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등 모든 형편을 잘 리해하고, 진심으로 사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신념을 언행으로 실행하였던 것이다.

雨森芳洲와 친했던 3 명의 조선사절

사절 중에는, 긴 여행을 함께하면서 雨森芳洲와 친하게 된 사람도 많았다.

1711 년의 사절단중 제술관 李東郭(이동곽)은, 귀국후에도 그리워서 雨森芳洲에게 시를 보내었다. 이 때의 역관이었던 玄德潤(현덕윤)은, 귀국후에도 친교를 계속하여, 외교는「성심」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높은 식견을 함께 하고 있었다. 부산관청에 근무하던 玄德潤은 雨森芳洲를 맞아 자비로 일부 공관을 개축하여,「誠心堂(성심당)」이라 이름을 붙였고, 雨森芳洲가 그와의 두터운 우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日本國會圖書館保存:誠信堂記)

1719 년의 제술관 申維翰(신유한)은, 일본에서의 기행문을 써서, 雨森芳洲와 친하게 나눈 회화의 기록을 남기었다. 귀국 때는, 헤어짐을 아쉬워하며 머리에 쓰는 두건을 선사하였다.

そのころ、実際に朝鮮に渡った人や、朝鮮語ができる学者は雨森芳洲しかありませんでした。

その雨森芳洲が最も活躍したのは、朝鮮通信使が日本を訪れた1711年と1719年のときでした。使節団を迎えると対馬から江戸まで案内し、交渉や調整に努めながら、外交文章をまとめたり、詩文の交換など、使節の高官とともに旅をともにしました。これらを通して朝鮮の人たちは、雨森芳洲を「日本で抜群の人」と尊敬していました。

雨森芳洲は、「国と国は対等である」という考えをもとに、相手の国のことをよく理解し、真心で交わ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信念を身を持って実行したのでした。



使節のなかには、長い旅を共にして雨森芳洲と親しくなった人もたくさんありました。1711年の使節団の製述官李東郭は、帰国したあとも懐かしんで雨森芳洲に詩を贈っています。このときの訳官であった玄徳潤は、帰国後も親交を続け、外交は「誠心」が大切であるという高い認識を共有していました。釜山にあった役所に勤めた玄徳潤は自費で一部の公館を改築し、「誠心堂」と名付け、雨森芳洲がその記録を残しています。

1719年の製述官申維翰は、日本での紀行文を記し、雨森芳洲との親しい会話の記録を残しています。帰国の時、別れを惜しんで頭巾を贈っています。



조선과의 외교에 마음가짐을 설득한「交隣堤醒」

朝鮮との外交の心得を説いた「交隣堤醒」

긴 세월 조선과의 외교에 바쳐온 雨森芳洲는, 그 바람직한 방법을 「交隣堤醒(고오린데이세이)」라는 책에 기록하고 있다. 그중에서, 첫째는 조선의 력사나 문화、풍속과 습관、지금까지의 일본과의 관계등을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쓰고 있다. 문화의 차이나 취향이 서로 다름을 리해하여야 할 필요성이나, 상대가 헤아려주는 마음가짐 등의 소중함 등, 여러 해 연구한 것과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기록하고 있다.



그리하여 마지막으로 「성심의 사귐」에 관하여,「서로가 속이지 말고, 다투지 말며, 진실하게 사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설득하고 있다. 조선과 대등한 관계의 입장 위에서, 우호를 주장한 雨森芳洲가 아니고서는 들어볼 수 없는 가르침이다.

朝鮮との外交に長年尽した雨森芳洲は、そのあり方を「交隣堤醒」という書に記しています。その中では、第1に朝鮮の歴史や文化、風俗や習慣、これまでの日本との関係などを知っておくことが大切であると書き出しています。

文化の違いや好みの相違を理解していることの必要性や、相手の思いやる心使いなどの大切さなど、長年研究したことや経験したことをもとに記しています。

そして最後に「誠心の交わり」について、「お互いに欺かず、争わず真実を持って交わ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説いています。朝鮮との対等な関係のうえにたって、友好をめざした雨森芳洲ならではの教えといえます。

雨森芳洲를 징검다리로 더욱 깊은 우호관계를 향하여

雨森芳洲を掛け橋に、さらに友好関係をめざし

1990년、일본에 오신 한국의 노태우 대통령은, 궁중 만찬회의 인사말씀에서 「270년전、雨森芳洲는 성의와 신의를 신조로 한일 우호에 힘써 왔습니다」고 소개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또, 2002년 한국을 방문한 小泉(고이즈미)수상은、오찬회의 스피-치에서 「성심의 사귐」의 雨森芳洲의 말을 인용하여, 양국의 외교의 바람직한 방향을 소개하였다. 雨森芳洲의 가르침은, 21세기의 지금까지도 찬란히 빛나며, 양국의 미래의 관계를 밝혀주고 있다.

1990年、日本を訪れた当時の韓国の盧泰愚大統領は、宮中晩餐会のあいさつの中で「270年前、雨森芳洲は誠意と信義を信条としました」と紹介され多くの人に知られることになりました。

また、2002年韓国を訪れた小泉純一郎首相は、昼食会のスピーチで「誠心の交わり」の雨森芳洲の言葉を引用して、両国の外交のあり方を紹介されました。

雨森芳洲の教えは、21世紀のいまでも毅然たる輝きを持って両国の未来の関係を照らしているのです。

雨森芳洲를 기리는 기념관「雨森芳洲庵」雨森芳洲を讃える記念館「雨森芳洲庵」

雨森芳洲의 출신지인 滋賀縣(시가켕)의 琵琶湖(비와꼬)의 호숫가 高月町(다까쯔끼읍)에서는, 雨森芳洲의 생애와 업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기념관 「동 아세아교류 하우스雨森芳洲庵(암)」을 건축하여, 조선과의 외교에 바친 雨森芳洲의 생애와,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온 사절로서 거둔 교류의 업적을 알아보기 쉽게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다. 방문한 사람들은 300년전에 조선과의 우호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온 일본인이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며, 새삼스레 그 위대함에 탄복하고 있다. 또, 마을 사람들은 한국 청소년들의 홈스테이 등、雨森芳洲의 정신을 이어받아 풀뿌리(민간) 교류를 계속하고 있다.



雨森芳洲の出身地である滋賀県の琵琶湖の辺・高月町には、雨森芳洲の生涯や業績を多くの人に紹介する記念館「東アジア交流ハウス雨森芳洲庵」が建てられています。そして、朝鮮との外交に尽した生涯や朝鮮通信使のことが分かるように資料を展示しています。

ここには、韓国からも多くの人がおとずれています。訪れた人は、300年前に朝鮮との友好のために尽した日本人がいたことに驚いたり、改めてその偉大さに敬服されています。

また、町の人々は韓国の青少年とのホームステイなど、雨森芳洲の心を受け継いだ草の根の交流を続けているのです。

東アジア交流ハウス雨森芳洲庵
滋賀県長浜市高月町雨森1166番地　TEL/FAX.0749-85-50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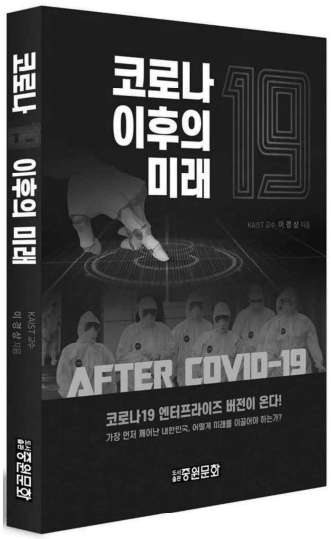
코로나19 이후의 미래,
글로벌 밸류 체인의 패러다임 변화



이경상 교수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godo@kaist.ac.kr

Corona 19 이후의 미래, 2020년 5월

#1 Global Value Chain 再編, #2 中國發 경제의 Pandem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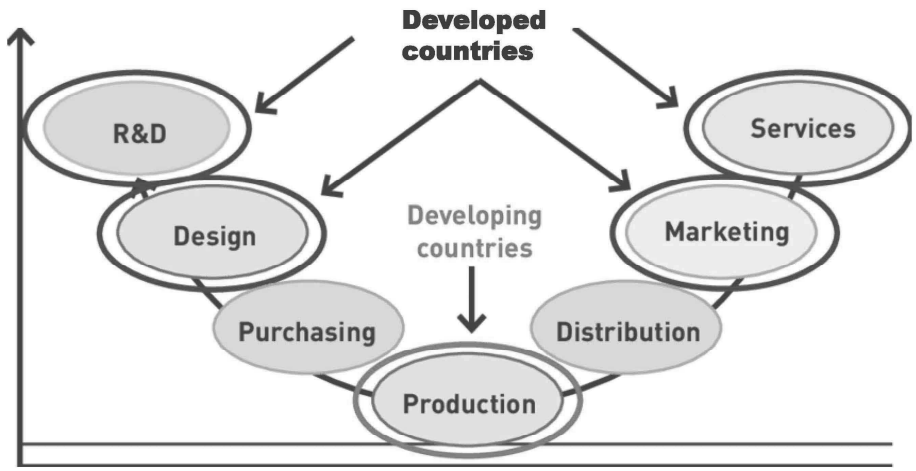
KAIST

2

Copyright@2022 by '이경상'. All rights reserved.

Global Value Chain은 무엇인가?

1990년도 이후에 등장한 국가 간의 생산 및 무역 네트워크.
제품 디자인, 원재료 공급, 제품 생산, 시장 유통까지의
국경을 초월한 가치 이동에 대한 글로벌 경영의 핵심 용어



Copyright@2022 by '이경상'. All rights reserved.



I

新冷戰, 글로벌 공급망의 再編

Copyright@2022 by '이경상'. All rights reserved.

글로벌화의 종말을 부른 중국과 러시아의 이탈

중국의 불투명성과 국경 폐쇄는 글로벌 공급망에 큰 충격을 주었다. – CNN, 2020

코로나 바이러스는 글로벌 제조 허브로서 중국의 종말이 될 것이다 – Forbes, 2020

코로나 바이러스는 더 탄력적인 공급체인의 필요성을 증명했다 – HBR,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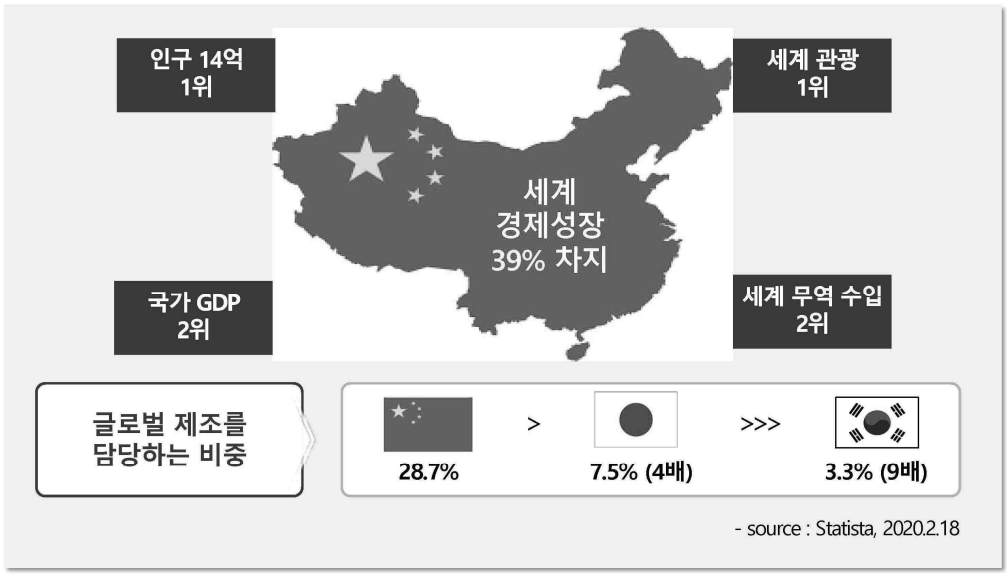
"중국식 자본주의는 결국 자본주의가 아니라는 충격적 교훈을 주었다.
- Wall Street Journal , 2021

"중국 공산당의 리스크는 언제든지 글로벌 산업분야 전체를 초토화 할 수 있다."
- bloomberg,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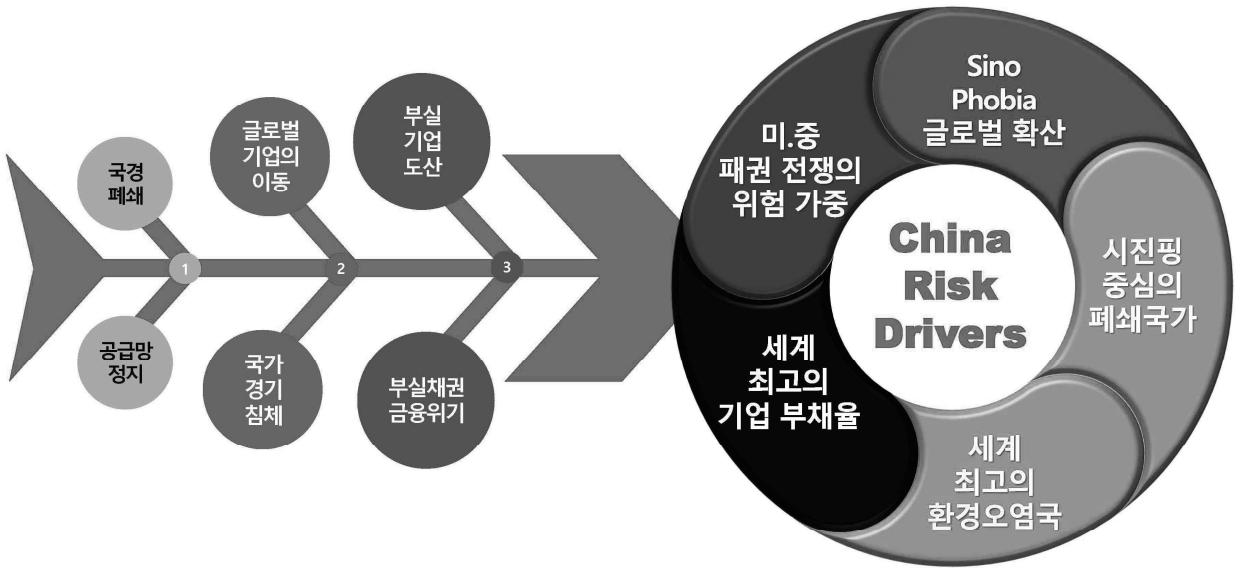
Copyright@2022 by '이경상'. All rights reserved.

GVC에서 중국은 엄청난 영향력의 국가이다!



Copyright@2022 by '이경상'. All rights reserved.

글로벌 제조 슈퍼 허브 국가의 위상이 침몰한다!



Copyright@2022 by '이경상'. All rights reserved.

변화 1 글로벌 제조 공장, 어디로 갈 것인가?

전략적 대안 멕시코



장점: 북미와 유럽과의 지리적 근접

단점: 정치부패와 마약 문제

정치적 대안 인도



장점: 세계 2위의 인구

단점: 4계급 사회와 부의 편중

지역적 대안 아세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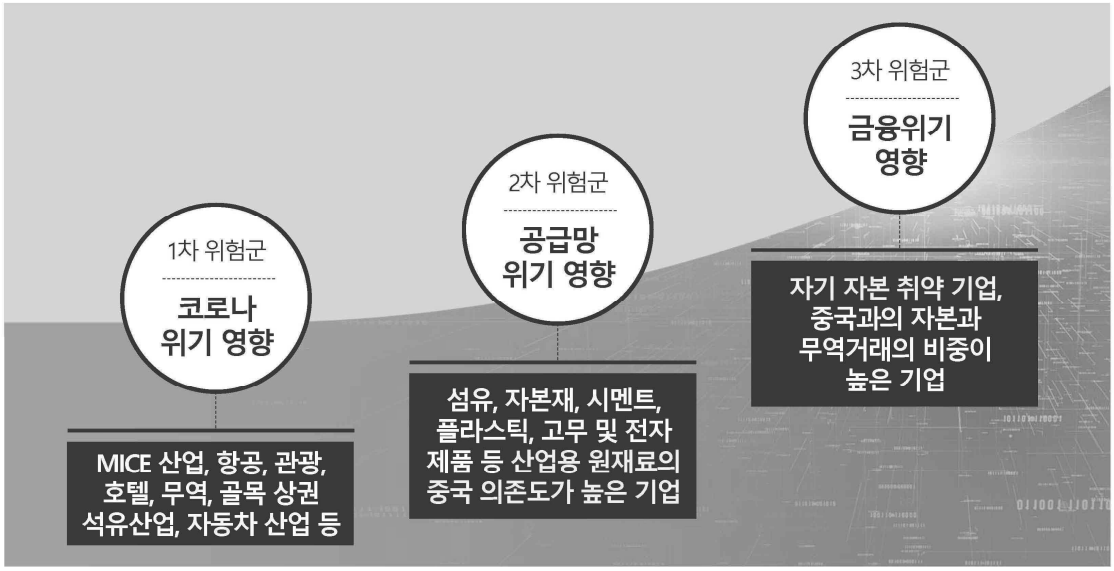


장점: 경제부흥 열기

단점: 낙후된 산업 기반

Copyright@2022 by '이경상'. All rights reser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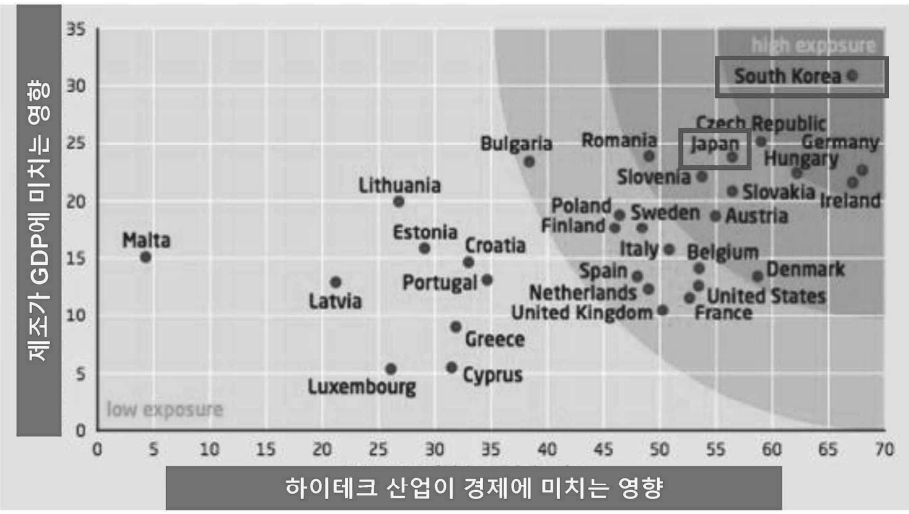
변화 2 향후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산업은 무엇인가?



Copyright@2022 by '이경상'. All rights reserved.

변화 3 중국 리스크, 기회인가? 위협인가?

출처: 독일 MERICS, '중국 제조 2025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2016



Copyright@2022 by '이경상'. All rights reserved.



Ⅱ

탄소중립 규제와 순환경제 등장

Copyright@2022 by '이경상'. All rights reserved.

탄소 발생의 국가별 순위– 한국과 일본의 위협

세계 10대 CO_2 배출 국가
(총 CO_2 in Mt) - EU JRC 2020

1.China — 11680.42
2.USA — 4535.30
3.India — 2411.73
4.Russia — 1674.23
5.Japan — 1061.77

6.Iran — 690.24
7.Germany — 636.88
8.Korea — 621.47
9.Saudi Arabia — 588.81
10.Indonesia — 568.27

189개국 13,000개 도시의 1인당 탄소 발자국

랭킹	도시	국가	인구	Footprint (Mt CO2)
1	Seoul	South Korea	21,254,000	276.1 ±51.8
2	Guangzhou	China	44,309,000	272.0 ±46.2
3	New York	USA	13,648,000	233.5 ±75.4
4	Hong Kong SAR	China	6,029,000	208.5 ±37.8
5	Los Angeles	USA	13,482,000	196.4 ±43.7
6	Shanghai	China	23,804,000	181.0 ±44.6
7	Singapore	Singapore	5,235,000	161.1 ±34.1
8	Chicago	USA	7,260,000	152.9 ±37.2
9	Tokyo/Yokohama	Japan	32,999,000	132.8 ±21.4

Copyright@2022 by '이경상'. All rights reserved.

순환 경제(Circular Economy)란 무엇인가?

순환 경제는 자원 추출에서 산업 변환을 거쳐 최종 소비 후 폐기를 하는 모든 산업 생태계의 재료 및 제품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폐기물 및 오염 제거, 제품 및 재료 순환, 자연 재생을 목표로 하는 경제 시스템

선형.재활용 경제는 하류에서 행동하는 것이고, 순환경제는 상류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제품의 환경 영향에 대해 약 80%를 결정하는 것은 설계 단계에서 내린 결정의 결과이다.



순환경제의 5R

Refuse (거부)
Reform (재구성)
Reduce (절감)
Reuse (재사용)
Recycle (순환)

Copyright@2022 by '이경상'. All rights reserved.

2022 Samsung, Together for tomorrow

자원 사용을 줄이고(reduce), 플라스틱 소재를 대체하고(replace), 제품 파트 수를 줄이는 (remove) 제품을 개발하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혁신의 최우선 과제로 채택





Copyright@2022 by '이경상'. All rights reserved.

변화 1 순환 경제의 소재 혁신은 공급망을 변화시킨다



에르메스가 스타트업 MycoWorks 와 버섯기반 '실바니아' 가죽 개발



Ikea 친화경 포장을 위해 균사체로 만든 생분해성 포장재 개발



사과 껍질로 다양한 색상, 모양, 질감, 내구성이 뛰어난 가죽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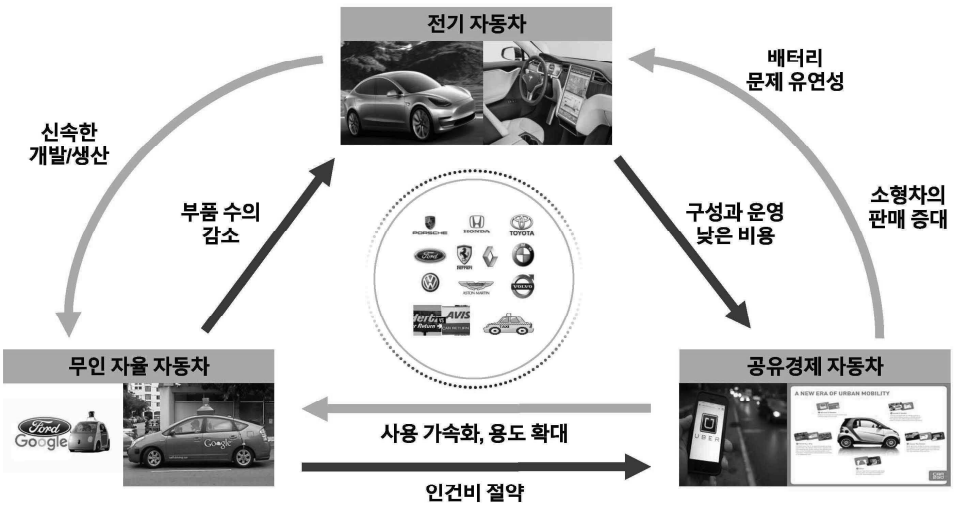


SNACT, 바나나 껍질로 만든 비닐을 대체하는 제품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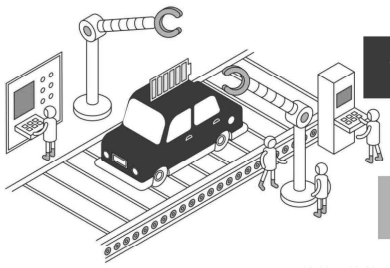
Copyright@2022 by '이경상'. All rights reserved.

변화 2 순환 경제는 GVC 생태계의 체계를 바꾼다

자동차 운송 시장은 전세계 5조 달러 (6,000조 원)



Copyright@2022 by '이경상'. All rights reserved.



'業에서 界'로 진화, 생태계로 발전된다.

변화하는 자동차 생태계

중고차 | 자동차 | 보험 | 정유 | 통신 | 휴게소 | 정비 | 폐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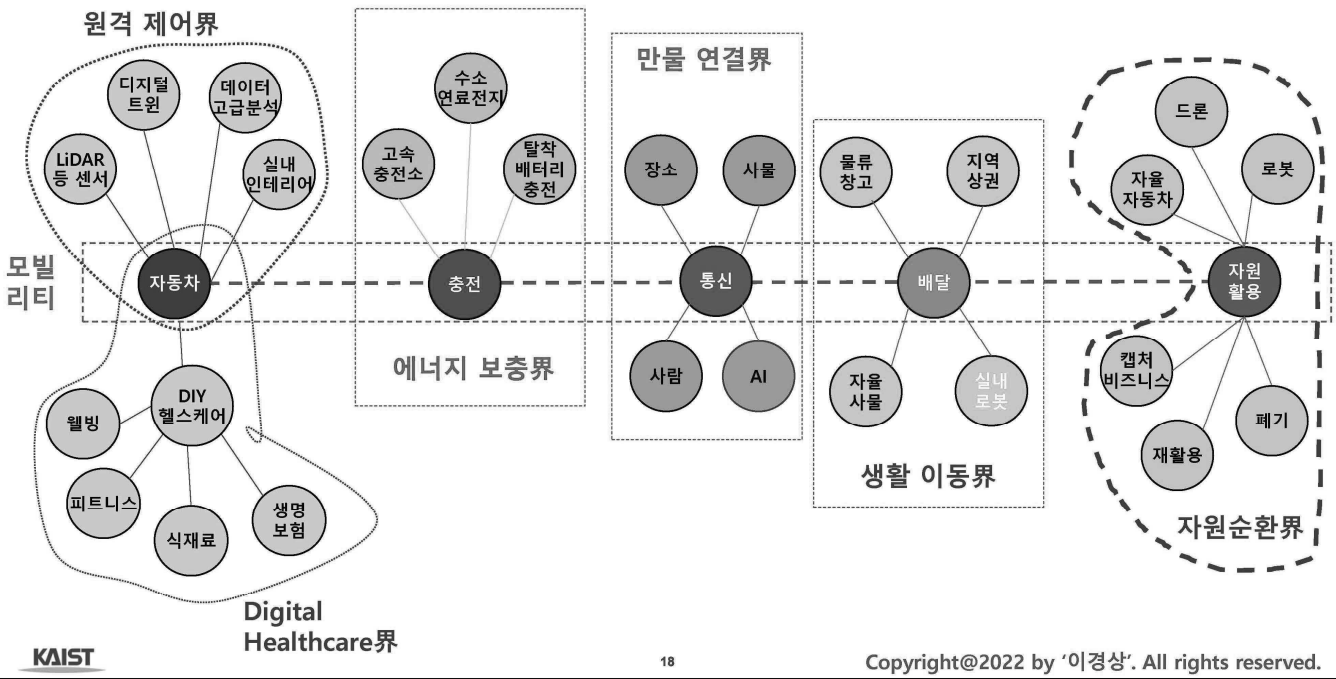


KAIST

17

Copyright@2022 by '이경상'. All rights reserved.

移動界 에서 複雜界로 진화하는 모빌리티 생태계



KAIST

18

Copyright@2022 by '이경상'. All rights reserved.

변화 3 순환 경제는 逆物流 패러다임을 바꾼다

판매 제품의 반품 | 미판매 제품의 반품 | 시연제품의 반품 << 순환경제의 재사용을 위한 역물류



Copyright@2022 by '이경상'. All rights reserved.

건설용 중장비 재제조를 위한 혁신, Caterpilar

몇 번이고 재제조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데 주력하여, 최고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면서 더 큰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순환경제 제조 혁신을 완성
전 세계 9개 지역에서 부품의 회수 물류 조직에 36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

제품이 파손되기 전에 교체하고 새 부품과 중고 부품을 혼합하여 재조립함으로써 최고 품질의 부품을 계속 생산할 수 있도록 자체 제품 설계부터 혁신
비용의 35%가 간접비이고 65%가 재료비인 동종업계에서 따라서 간접비를 줄이는 데 목표가 집중되는 경쟁업체보다 엄청난 생산성 우위를 확보



고객에게 새 제품 비용의 50-60%로 동일한 성능을 얻고 있음을 확신시키고 교육시키는 것이
핵심 성공요인 중의 하나

Matt Bulley, EAME 제품 관리자, 전무 이사

Copyright@2022 by '이경상'. All rights reserved.

역물류(Reverse Logistics)의 혁신 과제

역물류 효율성의 3가지 장애 요인

1) 반품이 지리적으로 광범위하게 분산됨
2) 규모의 경제 부족으로 인한 비효율성
3) 분류 작업은 노동 집약적이며 공간이 필요함

역물류 디지털 전환이 필요한 이유

1)역물류 처리의 높은 변동성 비용을 관리
2) 소비자의 요구와 불만을 반품과 연동하여 제품 혁신
3) 반품된 제품의 흐름에 대한 가시성적 예측기반 대응 체계 필요

Copyright@2022 by '이경상'. All rights reserved.



III

GVC 의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

Copyright@2022 by '이경상'. All rights reserved.

교훈 코로나-19 로 배운 위기관리 방법: 3T



Test
(상황인지)

광범위 검사

신속한 조사



Trace
(모니터링)

정밀한 추적

투명한 공개



Treat
(행동)

이해자 협력

상황적 전술

Copyright@2022 by '이경상'. All rights reserved.

전략1 미래의 돌발변화에 시나리오로 대응하라!

미래위험 유발 요인 파악

미래를 변화시키는
정치.사회.환경.기술 등
핵심 변화 요인들은 무엇인가?

치명적 불확실성 파악

우리 산업/회사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은 무엇인가?

다양한 시나리오 개발

그 영향이 어떻게 오고
우리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징후 예측과 행동

데이터를 분석하고
포착된 징후에 맞는
시나리오 행동을 하는가?

Copyright@2022 by '이경상'. All rights reserved.

전략2 선제적이고 탄력적인 GVC 관리를 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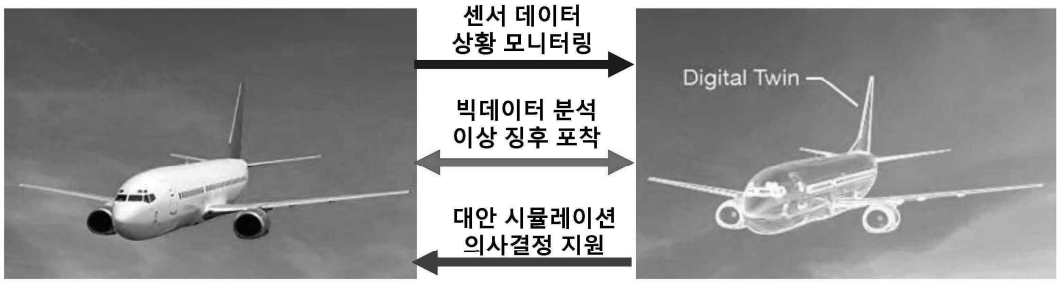


- GVC 분산화의 선제적 대응
- 원자재 변화에 탄력적 대응
- 증가하는 물류비용 절감
- 소비자 직접 판매 기술 확보

Copyright@2022 by '이경상'. All rights reserved.

전략3 Digital Twin으로 예지력을 향상하라!

디지털 트윈은 사물의 물리적 상태와 동작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AI 활용 기술
Digital Twin = '물체 + 센서 → 가상공간 + 인공지능'의 연결



**"디지털 트윈은 공급망 관리 기업에게 더욱 매력적이고 접근 가능한 옵션이 되고 있다.
GVC내의 모든 파트너 간의 긴밀한 협력은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물류혁신에 필수적이다."**

DHL의 혁신 부사장 Markus Kückelhaus

Copyright@2022 by '이경상'. All rights reserved.


Q&A
You have Questions
We have Answers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
「한일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

1

「한일 공동 에너지사업 실현을 향하여」
(저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도전)

2022년5월30일

한국미쓰비시상사㈜ 대표이사 사장
(SEOUL JAPAN CLUB이사장)
사토 토시노부

목차

2

I. 한일을 둘러싼 외적환경
II. 에너지분야에서의 한일 공동과제
Ⅱ-① 에너지의존도, 화석연료 비율
Ⅱ-② 주요국 발전량 중의 재생에너지 점유율
Ⅱ-③ 선진국들과 한일의 발전비용 비교
III. 한일 탄소 에너지정책 비교
IV. 장래를 향한 에너지과제, 공동사업의 필요성
V. 향후 한일 에너지 공동사업의 가능성
Ⅴ-① 암모니아 대규모 서플라이체인의 공동구축
Ⅴ-② 공동 허브터미널・선박구상
Ⅴ-③ 한일 국제송전망의 제안
VI. 마지막으로

- 서울재팬클럽 개요
- 참고자료

Ⅰ. 한국과 일본을 둘러싼 외적환경

3

국제정세	환경문제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 미중 경쟁 격화 ◆ 불확실성이 더해가는 북한동향 ◆ 에너지 가격 폭등 ◆ 세계적인 경제 침체	◆ 지구온난화 진행 ◆ 세계규모의 탈탄소를 위한 대응 가속
동맹관계강화 한미일 관계의 재정립	저/탈탄소로 시프트

Ⅱ. 에너지 분야의 한일 공통과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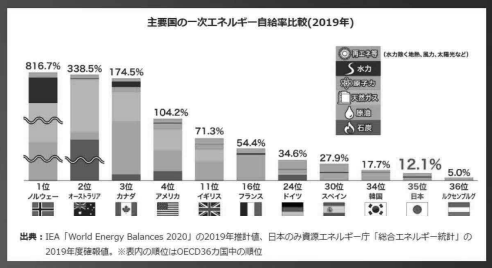
- 에너지원에 대한 높은 수입의존도
- 특히 화석연료 사용비율이 높다
- 낮은 재생에너지 비율, 타국에 비해 높은 재생에너지 발전비용
- 제조업 기반의 경제산업구조로 인하여 탄소배출량이 많다
- 경제선진국으로서의 "CARBON NET ZERO"에 대한 높은 책임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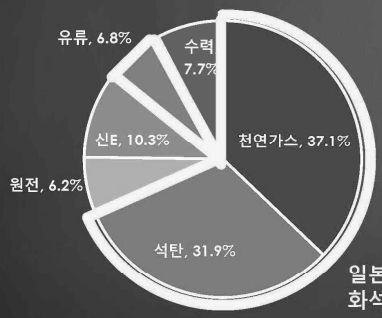
Ⅱ-① 에너지 의존도와 화석연료비율

5

- 에너지원의 수입의존도가 높다 (일본 87.9%, 한국 82.3%)
- 한국은 63.5%, 일본은 75.8%의 발전 에너지원을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다



2021년 일본발전 에저지원별 비율



일본은 75.8%가 화석연료

□ 가스 □ 석탄 □ 원전 □ 신재생 □ 유류 □ 수력

2021년 한국발전 에너지원별 비율



한국은 63.5%가 화석연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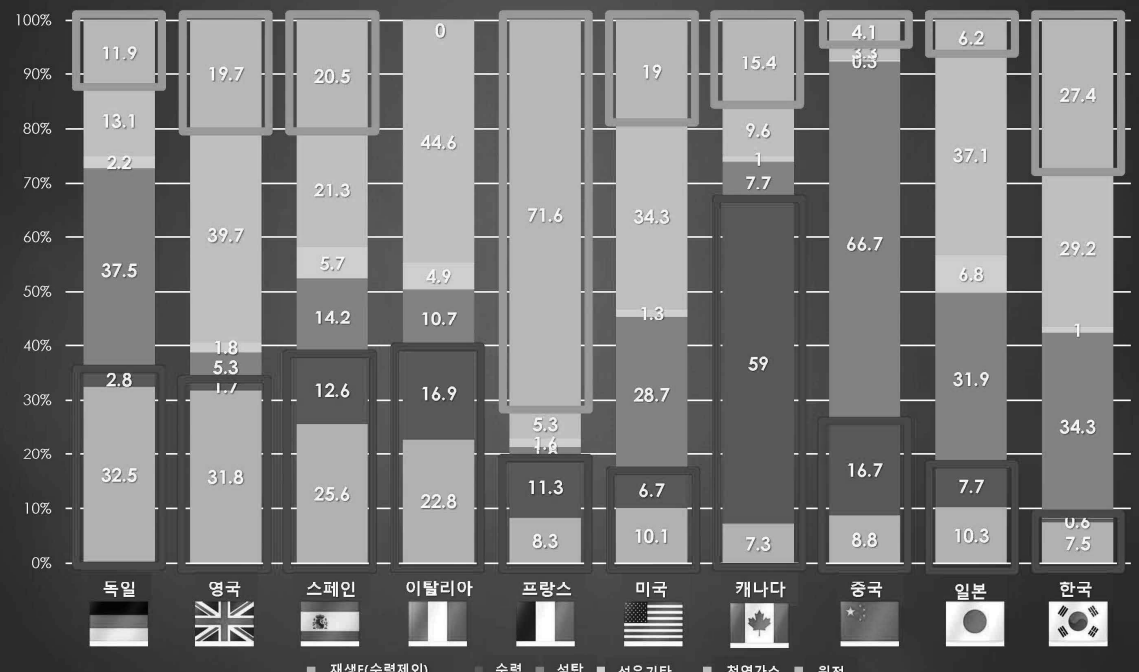
□ 가스 □ 석탄 □ 원전 □ 신재생 □ 유류 □ 수력 □ 기타

(출처 : 일본 자원에너지청)

Ⅱ-② 주요국 발전량 중의 재생에너지 점유율

6

2018년도 주요국 발전 에너지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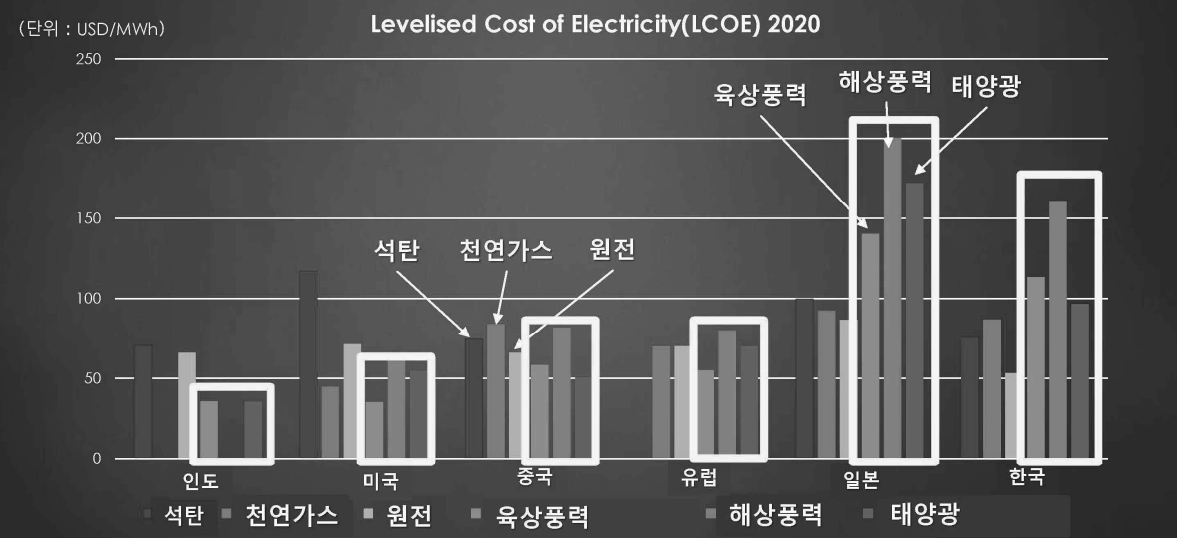


(출처 : IEA Data Services 2018 Data)

Ⅱ-③ 선진국들과 한일의 발전비용 비교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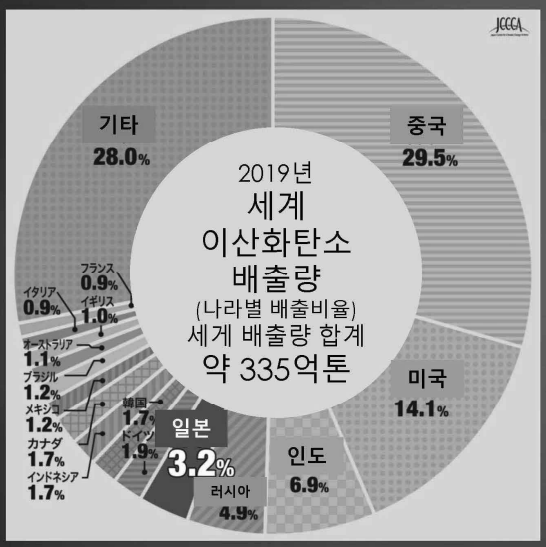
- 선진국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비싼 재생에너지 발전비용
- 재생에너지 생산에 꼭 적합하지만은 않은 자연환경조건 (기상조건/지리적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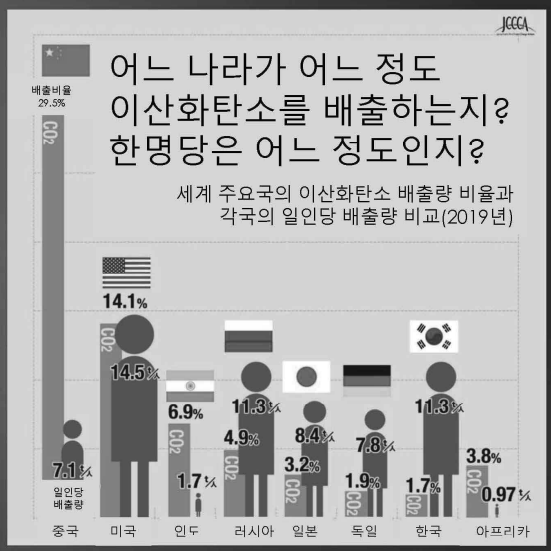


(출처 : IEA Projected Cost of Electricity)

(참고) 세계 CO2 배출량 (총량 · 일인당)

8





Ⅲ. 한일 탈탄소 에너지 정책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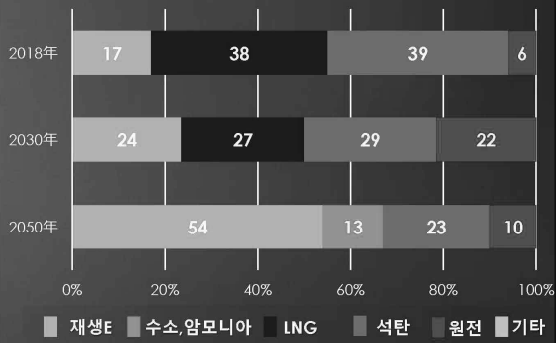
9

한국		일본
• 2050년에 탄소중립을 실현 • 2030년 NDC : 2018년 대비 CO2 40%삭감	기본 방침	• 2050년에 탄소중립을 실현 • 2030년 NDC : 2013년 대비 CO2 46%삭감
• 2030년까지 급진적으로 재생E 비율을 올리는 한편, 석탄, 천연가스, 원전의 비율을 내려 2050년에 탈탄소실현 • 2050년에는 A·B의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 • 원자력발전에 관해서는 전정권 방침이었던 "탈원전 " 이 전제	전원 구성	• 2030년까지 원전과 재생E 비율을 서서히 높이고, 석탄,천연가스, 원전의 비율을 서서히 감소 • 2050년의 경우, 기술개발,정세변화를 바탕으로 한 7개의 시나리오를 상정 ※이하의 2050년은「참고치」시나리오



✓ "도전적이고 야심적인 삭감목표" (전내통령)
✓ 탈원전 정책의 재고 (신대통령)
✓ 이번 가을에는 신에너지중장기계획 발표 예정

한국정부발표자료, 한국무역통계



✓ 원자력발전의 재가동이 과제
✓ 암모니아 혼소등 현실적인 시책을 포함

, 경제산업성,(공재)지구환경산업기술연구기구, 일본원자력문화재단

Ⅳ. 한일 에너지협력의 필요성

10

▶ 이러한 것은 양국의 공통과제임과 동시에 세계적으로 보면 매우 특수한 환경이다. **양국의 유사성은 세계의 특수성이다.**

▶ 한편 장래의 탈탄소화를 위해서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경제적 장애물이 매우 높다. 재생에너지 도입 비용, 그린수소(암모니아) 생산, 운반, 저장비용. **국제적 경쟁력 열화. 국민생활 부담감 증가.**

▶ 수소를 축으로한 저탄소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타국과 다른 **새로운 대규모 에너지 서플라이체인의 구축과 기술혁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양국간의 협업 필요성
독자적이 아닌 공동노선으로 양국의 **경제적부담을 저감**시키고 더불어 **빠른 에너지 혁신**을 실현한다. 한일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모델케이스로 전개.

(참고)
세계의 그린수소(암모니아) 주요 생산 지역 및 비용

11



(출처 : IEA "The Future of Hydrogen"
Hydrogen Strategy for Canada "Carbon-Free Exporter Map")

V-① 향후 한일 에너지 공동사업의 가능성
~ 암모니아 대규모 서플라이체인의 공동구축 ~

12

화석연료의 대체방법으로는 궁극적으로 **수소에너지로의 전환**이라고 하나, 현실적인 단계적 이행연료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암모니아**이다. 수소사회의 본격적인 도입 전단계로서 암모니아의 석탄혼소라는 **한일 고유의 틈새 단계**를 한일이 협력해서 진행하는 것이, 새로이 구축해야하는 서플라이체인에 최종적 연결고리가 될 것이다.

- 암모니아는, CO_2를 배출하지 않는 천연가스나 재생가능 에너지 등으로부터 제조하는 것이 가능하다 (연소해도 CO_2 를 배출하지 않는다)
- 더불어 암모니아는 수소캐리어로서도 활용할 수 있고 또한 (수소로 변환하지 않고도) 연료로 직접 이용이 가능하다. 수소와 비교하여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기에 저렴하게 제조,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

한일 공동의 암모니아 서플라이체인 구상

수요	생산	수송	저장	사용
발전	천연가스 (CCUS)	공동건조 (ULGC)	공동저장 Hub Terminal	혼소/전소
수소	재생E (수전해)	공동운영	한일수송 (SWAP)	수소생산
화학제품	한일 협력이 가능한 분야			

(참고) 수소발전, 암모니아 발전 비용 비교

13

	수소발전 (2020년 시점 계산)	암모니아발전 (2018년 시점 계산)	
제조	해외수소제조 (천연가스+CO2판매 (EOR용도)) **11.5엔**/Nm3	해외수소제조 (천연가스+CO2판매 (EOR용도)) **11.5엔**/Nm3(=201달러/톤)	
		해외암모니아제조 **4.3엔**/Nm3(=76달러/톤)	
수송	수소수입 (탱크로리 수송+액화 + 적하 + 해상운송) **162엔**/Nm3 *	암모니아수입 (적하 + 해상운송) **2.3엔**/Nm3(=40달러/톤)	
발전	수소발전기 **7만~9만엔**/kW **	암모니아 전소설비 **46만엔**/kW	(참고)암모니아 혼소설비 **29만엔**/kW
발전 비용	전소 **97.3엔**/kWh ***	열량베이스 (참고) 10%혼소 20.9엔/kWh ***	전소 **23.5엔**/kWh (참고) 20%혼소 **12.9엔**/kW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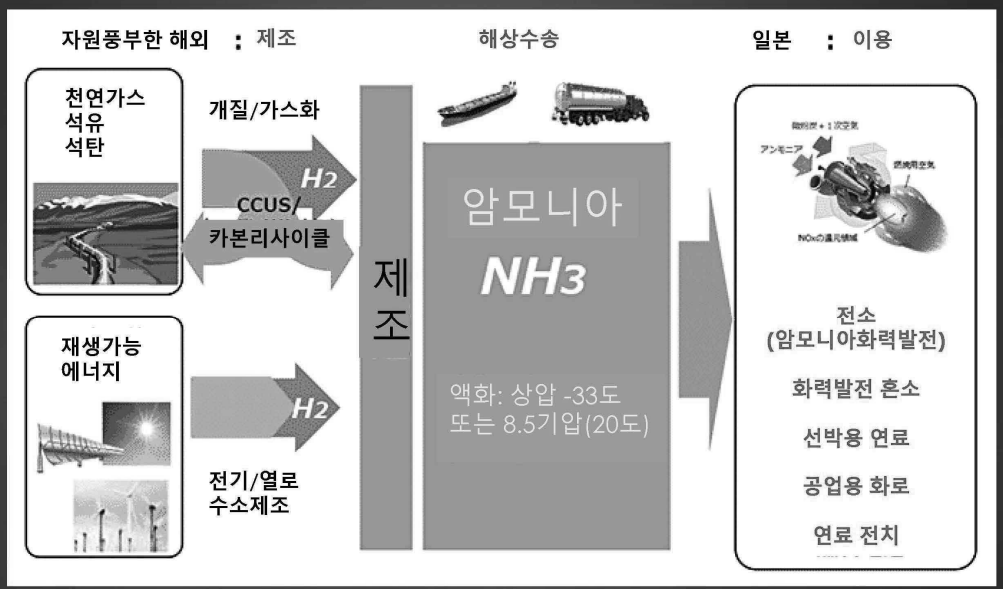
(출처)
* 사업자 청취에 의한 계산
** 후지경제 "2020년판 수소이용시장의 장래전망" 수소 가스터빈 발전
*** 발전비용 검증 WG로부터 계산

(출처)
* 암모니아제조 수입비용: 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 SIP "CCS/EOR기술을 축으로한 CO2 Free암모니아 사업성평가 " 를 바탕으로 에너지청 계산
** 암모니아 혼소설비, 발전비용가격 : 발전개발SIP"화력발전연료로서의 CO2 Free암모니아 서플라이체인 기술검토 "
*** 암모니아전소설비, 발전비용 : 사업자 청취 등을 바탕으로 에너지청 계산

(출처 : 자원에너지청)

(참고) 연료 암모니아 이용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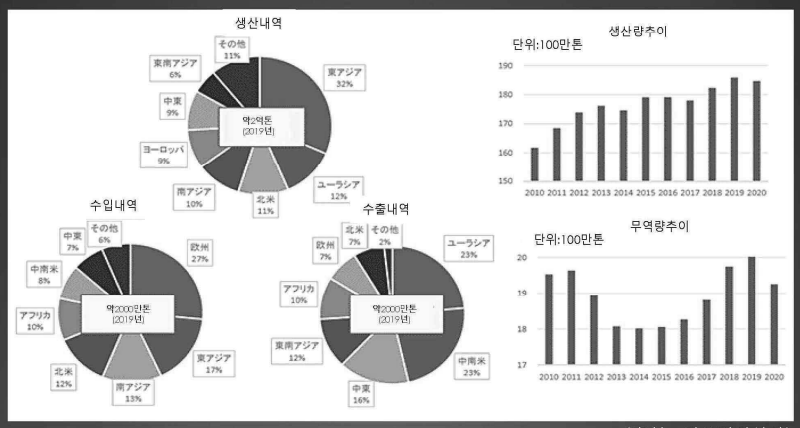
14



(출처 : 자원에너지청)

(참고) 암모니아 시장규모

15



(출처 : 미쓰비시상사)

【한국 암모니아와 수소수요예상」

일본 암모니아 수요예상은 2030년 300만톤, 2050년 3,000만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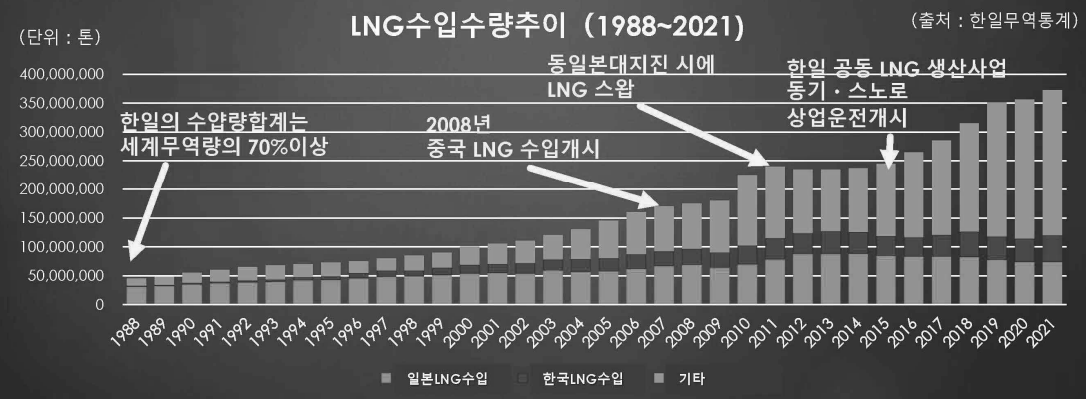


(출처 : 미즈호은행)

V-① 에너지 서플라이체인 구축 사례

16

- 한일 LNG 사업
  - 1969년 일본이 처음으로 알래스카산 LNG 수입
  - 1970년 세계 첫 LNG 전소화력발전소를 일본이 가동
  - 1986년 한국도 LNG 수입 개시
  - 2011년 한일 첫 LNG 공동프로젝트 체결, 2015년 출하개시



(참고) 한일 에너지 공동사업의 사례

17

인도네시아·LNG공동개발 동기·세노로 사업

- ✓ 천연가스를 개발, 생산하는 Upstream사업과 천연가스로부터 LNG를 생산하는 Midstream사업으로 구성. Up, Midstream 모두 인도네시아 Pertamina사, Medcot사와 함께 한국가스공사 및 미쓰비시상사가 참가. Midstream 사업에 있어서는 한국가스공사와 미쓰비시상사의 합작회사가 최대지분을 보유한 세계 최초 All Asia LNG사업
- ✓ 2011년 1월에 최종투자 결정을 하였고, 2015년 8월에 LNG 첫선적을 출하. 현재는 연간 200만톤 이상의 LNG를 생산하고 일본 및 한국으로 출하하고 있다



LNG 플랜트 사이트

Upstream(Senoro-Toili PSC)

Tomori E&P	20%
(미쓰비시상사/KOGAS)	
인니Pertamina	50%
인니Medco	30%

기타사업

Midstream (Donggi-Senoro LNG)

Sulawesi LNG Development	59.9%
(미쓰비시상사/KOGAS)	
인니Pertamina	29.0%
인니Medco	11.1%

130만톤 — 2021년수입량 : 7,400만톤 세계2위

70만톤 — 2021년수입량:4,600만톤 세계3위



V-② 향후 한일 에너지 공동사업의 가능성

~ 공동 허브터미널・선박구상 ~

18

- ▶ 한일 공동으로 기존의 VLGC（Very Large Gas Carrier）3~4배 규모의 ULGC（Ultra Large Gas Carrier）를 건조・운영
- ▶ 공동 허브터미널에서 각 수요처에



V-③ 향후 한일 에너지 공동사업의 가능성

~ 양국간 국제 송전선(망) 프로젝트 구상 ~

19

유럽 ENTSO-E 처럼 **한일에 의한 국제 연계 전력선(망)**을 구축.
주요 이점은 아래와 같다.

- 경제합리성
- 안정공급. 수급밸런스 균형에 기여
- 긴급시 전원의 백업
- 자연 에너지 도입의 측면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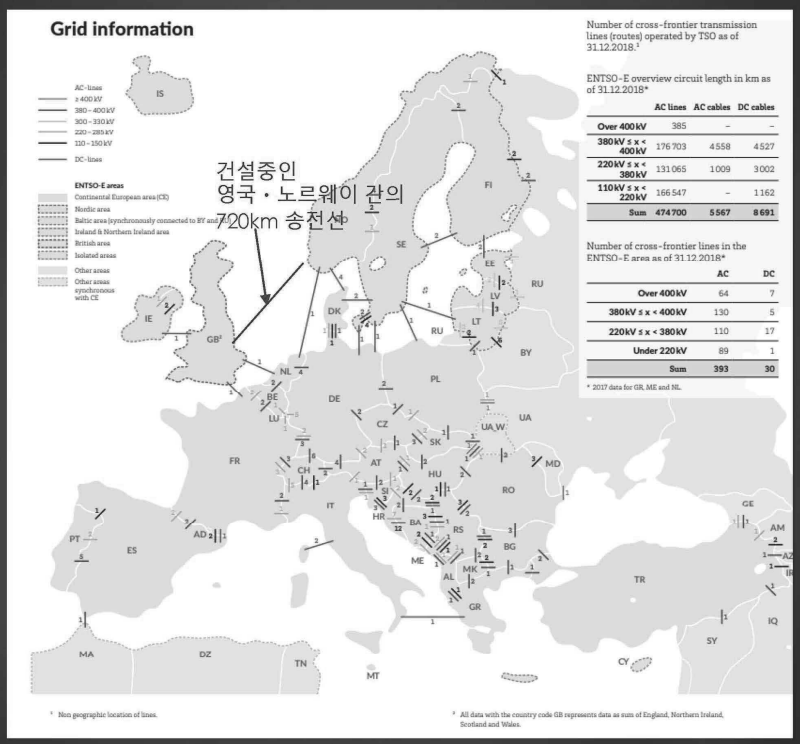
＊양국 모두 장래적으로는 자연 에너지 확충을 목표로 세우고 있고, 국제 연계선 설치는 자연 에너지의 약점 (발전량을 조절할 수 없다. 현재 축전이 어렵다.) 을 보완하기에 효과적이다.



(출처 : 아시아 국제 송전망 연구회)

「ENTSO-E」

20



(출처 : ENTSO_E Statistical Fact 2018)

「아시아 국제 송전망 계획」

21

- 아시아 각지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태양광, 풍력, 수력 등의 자연에너지자원을 상호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국을 연결하는 국제적 송전망



（出所：自然エネルギー財団）

Ⅵ. 마지막으로

22

에너지 공동사업에 필요불가결한 것은…

국가레벨의 재정지원

관련 규제의 완화·통일

양국간의 영속적이고 흔들림없는「신뢰관계 구축」

혁신적인 에너지기술의 공동개발

민·관·학의 한층 더 깊은 연계

서울재팬클럽(SJC)

23

1997년에 3개의 일본계 기관이 통합하여 발족. 한국내 최대의 일본 커뮤니티.

일본인회(1966년설립)
일본상공회(1967년설립)
JV회(1972년설립)

→ 서울재팬클럽(SJC)
(1997년설립)

회원수(현재)
법인 약350사
개인 약1300명

활동목적

- 회원상호의 친목 및 계발, 복지 향상
- 한일 양국의 친선, 한국사회에 공헌
- 한일 양국 경제관계의 원활한 발전 지원





개인 활동 지원

안전대책
일본인학교 운영지원
한일교류의 지원・협력
볼란티어 활동
교양문화 세미나
각승지 탐방
문화행사・스포츠대회
공인클럽활동



법인활동 지원

회원기업간의 정보교환・간담
한국정부로의 건의사항 제출
경영 세미나・스터디회
각종정보・자료제공





(참고) 미쓰비시상사의 탈탄소화를 위한 대응 사례

24

- 연료 암모니아 제조를 위해 미국 Denbury와 이산화탄소 수송, 저장에 대한 합의
- 캐나다 앨버타주에서의 수소제조를 위한 각서 체결
- 인도네시아에서의 클린 연료 암모니아 생산을 위한 CCS 공동조사 각서 체결
- 미쓰비시상사가 참가한 총사업비 3,300억엔(약3조) 이상의 "그린수소 " 제조 사업
- 일본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있어서의 국내, 지역 서플라이체인 구축 및 저역 활성화에 연계된 공생시책
- 혁신적인 탈탄소 기술의 도입을 가속하기 위하여 Breakthrough Energy Catalyst에 참가
-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의 도입을 위한 사업화 검토
- 미쓰비시상사 LAWSON, 일본 최대급 오프사이트 PPA에 의한 재생에너지를 LAWSON에 공급
- Carbon Neutral Methane의 서플라이체인 구축을 위한 북미, 호주 등에서의 사업가능성 조사 개시







대한상공회의소

한일 경제계 차원의 협력:
한일 청년인재플랫폼 구축

대한상공회의소 지역인적자원개발팀

박기태 책임연구원

목차

1. 발표배경
2. 한일 노동시장 비교
3. 한국/일본 청년 노동시장 현안
4. 일본의 IT 인력부족
5. 한국 인재의 일본 취업 현황 및 취업가능성
6. 현재 활용되고 있는 인재 교류 플랫폼 및 한계
7. 양국 경제계 협력을 통한 인재 교류 플랫폼 구축

1 발표배경

-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 기조연설(2021년 제53회 한일경제인 회의)
  - **양국 경제계 차원의 협력 플랫폼 구축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양국 관계 복원에 기여**
  - **한일 양국의 비공통 문제는 상대국의 강점을 활용하여 해결 도모**(예: 일자리 문제)
- 대한상공회의소 '새 정부 출범 후 한일관계 전망' 조사
  (국내 기업 327개사 대상, 22/4/21)
  - 한일 협력분야에서 '**청년 취업 등 인적교류 활성화**'(19.0%)를 2순위로 꼽음(1순위 '반도체 등 공급망 재편에 따른 협력(48.3%))

대한상공회의소

1 발표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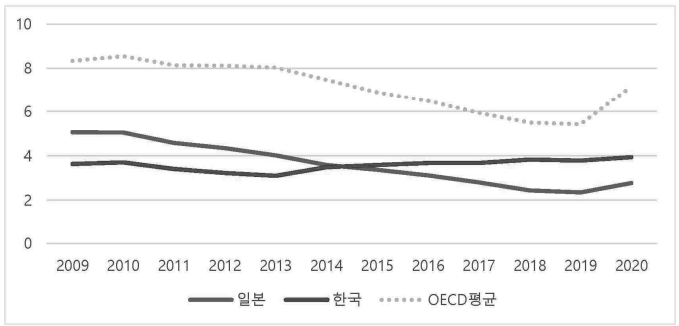
- **청년 일자리 문제는 양국 공통의 이슈**
- 양국 노동시장 내 미스매치에는 질적 차이가 존재
- 공통이자 비공통 이슈인 **청년 노동시장 이슈는 상대국의 강점을 활용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 **양국 경제계 협력을 통해 우수 인재가 인재 부족 국가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청년 일자리 이슈 해결이 필요한 시점**

대한상공회의소

2 한일 노동시장 비교

- 실업률(15-64세)
  - 양국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음
  - **대내외 경제상황 변동으로 2015년 이후 역전 (한국>일본)**

실업률(15-64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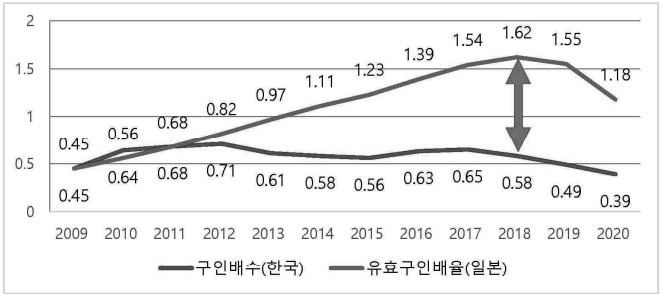


대한상공회의소

2 한일 노동시장 비교

- 양국 노동시장 내 **수요-공급 간 격차 증가**
  - 일자리 부족 심화(한국) 對 구인난 심화(일본)
- 한일 양국 노동시장의 수요-공급 지표 간 격차 심화
- **한국 → 일본으로의 인재 이동 통한 양국 일자리 문제 해결의 단초 제시**

구인배수(한국)/유효구인배율(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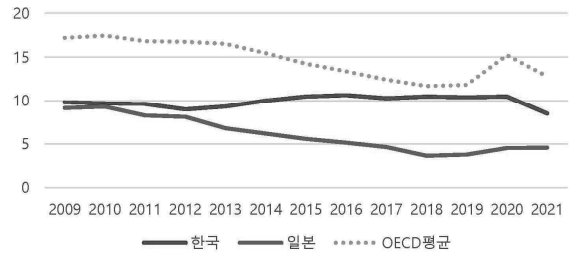


대한상공회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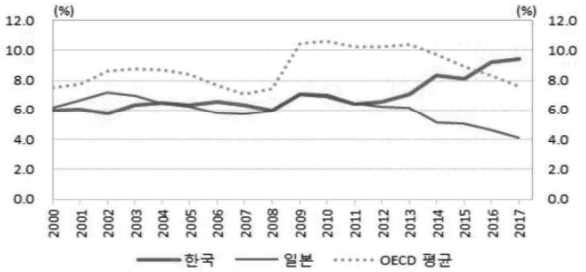
2 한일 청년 노동시장 비교

- 청년 실업률
  - 한국: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지 또는 **지속 상승**(25-29세)
    최근 20대 후반 청년실업률은 OECD 평균 상회
  - 일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하락하여 **역대 최저수준**
  -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일본의 2배 이상

<15-24세 청년실업률>



<25-29세 청년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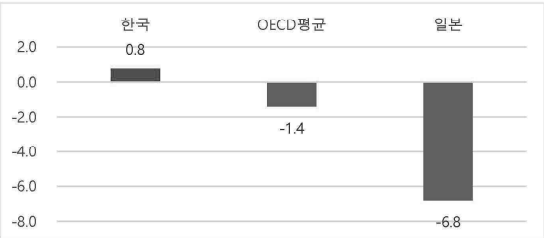


출처: 박상준, 장근호(2019: 60)

2 한일 청년 노동시장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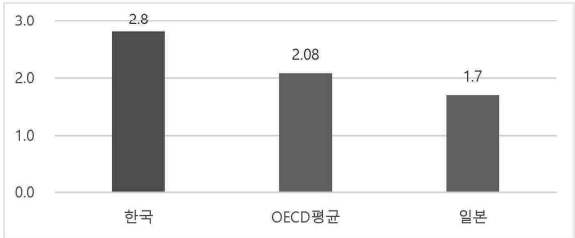
- 청년실업률 상승속도
  - 한국>OECD평균>일본
  - **한국: 청년실업 지속 증가**
  - **일본: 청년실업 대폭 감소**

<청년실업률 상승속도(2010-2020, 15-24세)>



- 청년실업률 평균배율
  - **한국>OECD 평균>일본**
  - 한국 청년실업률은
    전체실업률의 2.8배
  - 일본 청년실업률은
    전체실업률의 1.7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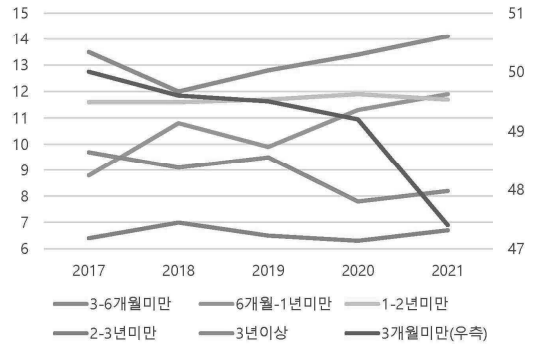
<청년실업률 평균배율 (2010-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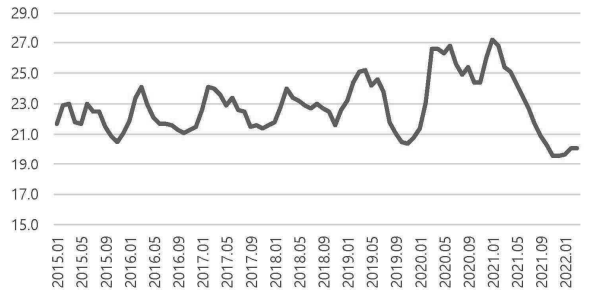
3 한국 청년 노동시장의 현안

- 일자리 부족 및 실업 장기화
  - 학업 후 취업 유예 또는 추가적인 직업훈련으로 첫 일자리까지 시간 증가
- 비정형 노동 및 비경제활동 청년의 증가
  - 청년층 약 1/4이 준실업상태

첫 일자리 획득까지 소요시간



청년 확장 실업률(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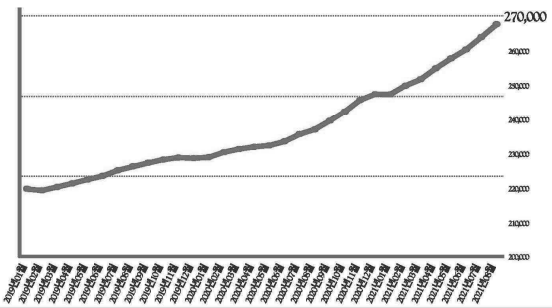
청년확장실업률 =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실업자+잠재경제활동인구)/확장경제활동인구×100

대한상공회의소

3 한국 청년 노동시장의 현안

- **4차 산업혁명 및 코로나19에 따른 산업구조변동으로 ICT 분야 인력 수요 급증 → 청년층에 기회**
  - 정부와 민간기업은 ICT 인력공급 확대에 초점 → 양질의 인력 다수 배출
  - 임금 상승 등 일자리 질 개선 → 해외취업 유인책 감소 가능성

서울지역 IT-SW 분야 고용 변동 현황(단위: 명)



출처: 서울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3 일본 청년 노동시장의 현안

- **기업의 구인난 심화**
  - 아베노믹스의 영향으로 경제 활황
    - 엔저 중심으로 일본 상품 수요 확대 및 수출 증가
    - 기업 수익 확대로 기업 채용 확대
  - 인구구조 변동으로 청년 인구 감소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및 저출산으로 청년 인구가 감소하여 청년 대상 고용시장 개선
    - "현재 일본에서 생산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상황은 개선되고 있으며 직업안정성도 좋아지고 있다"(도쿄대 가와구치 다이지 교수)

3 일본 청년 노동시장의 현안

- **젊은 세대가 포진해 있는 ICT 분야 인재 부족**
  - "일본은 핀테크, 빅데이터, 정보보안 투자가 많은데, 관련 엔지니어가 부족하여 관련 기업이 외국 인재를 찾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21/09/26)	일본 경제산업성

• **일본 IT 전문 인력 수는 세계 4위인 122만명(総務省 및 ILO)**
• **인력의 질이 문제로 지적됨**
  • **IT인재의 90%가 홈페이지와 앱을 개발하는 기존형 인재 (경제산업성, 2018)**
  • **AI와 IoT 관련 첨단 인재는 10%에 불과**
• **2014-2018년 이공계 졸업생 수는 연평균 0.4% 감소**
	• **IT 관련 인재의 공급은 감소하나 수요는 확대 예상**
	• **2030년 78만 9000명의 IT 관련 인력 부족 예측**
	• **최근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데이터에 대한 수요 증가**
	• **코로나 19로 재택근무가 증가함에 따라 일반 기업 내에서도 IT 담당자 업무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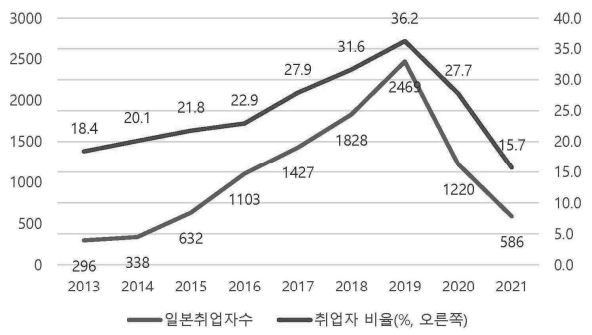
4 일본의 IT 인력부족

-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DT: digital transformation) **분야 구인수요 증가로 일손 부족**
- 일본 후생노동성(21/01/29)
  - **IT엔지니어 등 기업의 디지털 전환 전략에 필요한 직종에서는 꾸준한 구인수요 존재**
  - 정보처리/통신기술 분야 21년 1월 기준 유효구인배율은 1.89
  - 디지털 전환 분야 유효구인배율은 5.53배(민간 HR 대기업 Persol Career)

5 한국 인재의 일본 취업 현황

- 한국 국적 일본 취업자 수의 변화
  - **일본은 한국 국적 해외 취업자 중 가장 큰 비중이 취업하는 국가**
  - 2013년 이후 지속적 증가
  - 코로나19로 교류 중단된 이후 감소세

한국인 일본취업자수 및 취업자 비율(2013-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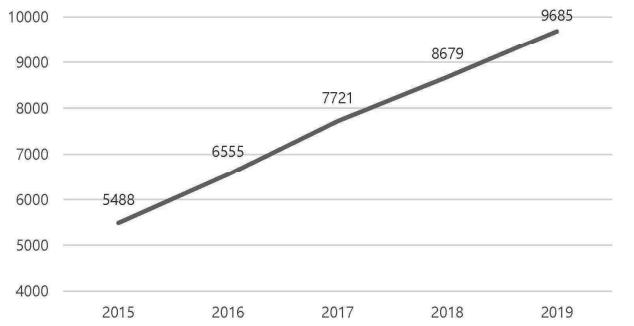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5 한국 인재의 일본 취업 현황(정보통신산업)

- 한국인이 취업하는 일본 내 일자리 절반 정도는 ICT 분야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국)
  - 일본 내 한국인 취업자 중 65.7%가 IT 직종 근무(한국무역협회 도쿄지부)
- 일본 내 한국 국적 정보통신산업 종사자 수 급증

일본 내 한국국적 정보통신산업 종사자 수



출처: 일본 후생노동성

대한상공회의소

5 한국 인재의 일본 기업 취업 가능성

- **일본 내 ICT 분야 인재수요 + 한국 청년 인재의 자질(ICT 기술, 어학능력, 글로벌 지향) → 높은 취업 가능성**
- **한국 내 ICT 인재 수요 급증 및 일자리 질 개선에 따른 한국 인재의 일본 진출 유인책 감소를 고려할 필요**
- **한국 노동시장의 배출요인(push factors) + 일본 노동시장의 유인요인(pull factors)를 극대화할 방안 모색 필요**

대한상공회의소

6 현재 활용되고 있는 인재 교류 플랫폼

- 한국 정부는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 제공 해외 진출 프로그램을 통합해 K-Move 센터 구축
  - 월드잡(www.worldjob.or.kr)은 직무경력이 풍부하고 외국어 능력이 우수한 사람을 위한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
- 한국산업인력공단, KOTRA, 한국무역협회(도쿄지부) 등에서 일본 취업에 도움이 되는 뉴스 제공
- 민간기관인 인크루트, 잡코리아, 건설워커, 미디어잡, 커리어, 사람인, 잡투게더, 동포경제인 단체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등 활용 가능

6 현재 활용되고 있는 인재 교류 플랫폼의 한계

- **일본 특화 정보 체계의 부족**
  - K-Move 사이트는 일본과 다른 나라의 일자리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
  - ICT 분야의 경우, 개발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서도 해외 취업 이루어짐
- **K-Move 통한 취업의 한계**
  - 실제로 원하지 않는 직무에 취업알선이 되는 일자리 미스매치 발생
  - 해외 인턴사업 참여기업 중 순수 외국기업은 소수
- **다수의 일본 IT취업 지원기관**
  - 취업지원금 및 취업률 향상을 목표로 하기도 함
  - 일자리 질 이슈: 수료 후 한국계 중소 SI 등에 취업

7 양국 경제계 협력을 통한 인재 교류 플랫폼 구축

- 기업 수요, 인재공급 관련 전체 정보가 한 자리에 모여 한일 양국의 **청년 인재 미스매치가 해소**될 수 있도록 경제계 및 정부의 노력이 필요
  - **한국 경제계/대한상공회의소: 일본 경제계 및 일본상공회의소와 연계하여 일본 기업의 인재수요 정보를 수집하여 국내에 배포하는 정보의 gateway 역할 수행**

7 양국 경제계 협력을 통한 인재 교류 플랫폼 구축

- **ICT 기술 발전 및 해외 취업 유인책의 감소를 고려한 새로운 인재 교류 플랫폼 모색 필요**
  - 코로나19 이후 IT붐으로 국내 인재 수요가 증가하여 해외 취업의 강점 감소 → 어떻게 인재 교류를 증가시킬 것?
  - ICT 기술의 발전에 따른 온라인을 매개로 한 리모트 근무 방식의 인재 교류 플랫폼 구축



대한상공회의소

감사합니다

일본어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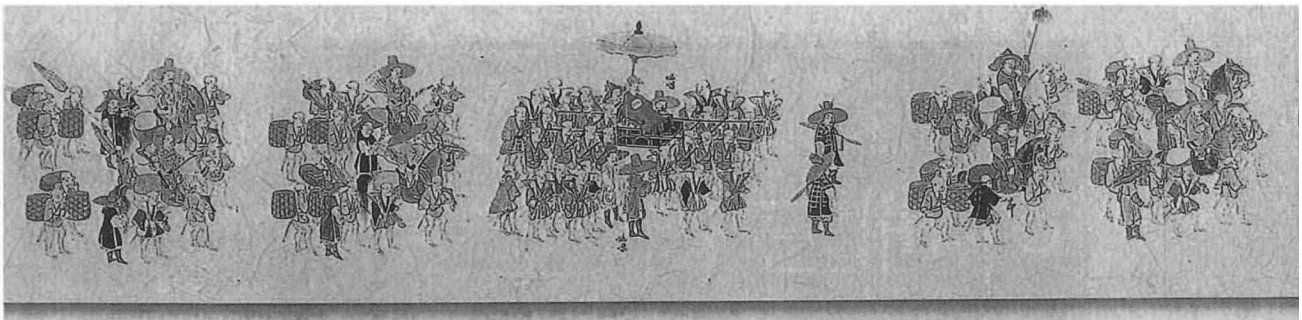
300년전 조선과의 우호에 생애를 바친 일본인

(300年前 朝鮮との友好に尽した日本人)

아메모리 호-슈

雨森芳洲





조선과 일본과 조선통신사

朝鮮と日本と朝鮮通信使

조선과 일본은, 오랜 옛적부터 이웃나라로서 외교와 무역을 하여왔다.

15 세기의 전반에는, 좋은 관계와 무역을 유지하기 위해, 양국의 사절단이 오가고 하였다. 그러나, 1592 년과 1598 년에, 豊臣秀吉(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 의해 조선이 큰 피해를 입자, 양국의 관계도 그때까지의 우호친선의 관계가 악화되어 회부할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豊臣秀吉의 사망후 새로운 지배자가 된 德川家康(도꾸가와 이에야스)는, 서울을 江戸(에도:東京)로 옮겨 정치를 하며, 조선과의 평화적인 관계와, 조선의 사절인 「조선통신사」의 재개를 원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1607 년, 다시 조선으로부터 400 명의 사절단이 일본을 방문케되었고, 그로부터 약 200 년간을 매회 500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적어도 5 개월에서 8 개월이나 걸리는데도 열두번이나 조선통신사가 일본을 방문하였다.

朝鮮と日本は、古くから隣の国として外交や貿易が行われてきました。15世紀の前半には、良好な関係や貿易を維持するため、お互いの使節団を派遣していました。しかし1592年と1598年、豊臣秀吉の壬辰倭乱と丁酉再乱によって朝鮮は大きな被害を受け、両国の関係もそれまでの友好親善の関係を回復不可能にするものでした。

豊臣秀吉のあと、新しい支配者となった徳川家康は、江戸（東京）で政治を行い、朝鮮との平和的な関係と、朝鮮からの使節である「朝鮮通信使」の再開を望みました。そして1607年、再び朝鮮から400人の使節団が日本を訪れることになり、それから約200年間に毎回500人もの人たちが5ヶ月から8ヶ月もかけ 12回も朝鮮通信使として日本を訪れました。

부산에서 조선어를 배운 雨森芳洲

釜山で朝鮮語を学んだ雨森芳洲

당시 조선과의 외교에서 일본측의 창구는, 조선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의 섬 「對馬(쓰시마:대마도)」였다. 對馬에서는 조선과 외교와 무역을 하기위해, 우수한 학자가 필요했다.

그리하여 외국에 관심이 많았던 雨森芳洲(1668-1755 年)는 對馬에 근무하며, 조선과의 외교와 무역의 직책을 맡았다.

雨森芳洲는, 일본에서 가장 큰 호수인 琵琶湖(비와꼬)가 있는 近江(滋賀縣:시가켕)의 출신으로, 어린 시절부터 학문에 힘써 왔다.

26 세 때 對馬에서 근무하던 雨森芳洲는, 부산에 있는 「왜관」이란 일본의 공관에 여러 차례 들러서, 그곳에서 3 년간 조선을 리해하기에 힘쓰며, 조선어를 공부하여 조선어를 습득하였고, 그후 조선과의 외교에 생애를 바쳤다.

そのころ朝鮮と日本の外交の日本側の窓口は、朝鮮に最も近い日本の島「対馬」でした。対馬では朝鮮と外交や貿易を行うためには、優れた学者が必要でした。そこで外国に関心の高かった雨森芳洲（1668−1755年）は対馬に勤めて、朝鮮との外交・貿易の職につきました。雨森芳洲は、日本で一番大きな湖である琵琶湖のある近江（滋賀県）の出身です。子どものころから学問に励んでいました。26歳のときに対馬に勤めた雨森芳洲は、釜山にあった「倭館」という日本の公館へ何回も渡り、ここで3年間朝鮮への理解を深めるとともに、朝鮮語を勉強して朝鮮語を習得しました。そしてその後、朝鮮との外交に生涯尽くしました。





조선통신사를 맞은「성심 외교」

朝鮮通信使を迎えて「誠信外交」

당시, 일본에서 실제로 조선에 건너온 사람이나, 조선어를 할 수 있는 학자는 雨森芳洲밖에 없었다. 그 雨森芳洲가 가장 활약한 것은, 1711 년과 1719 년에 조선통신사가 일본을 방문한 때였다.

사절단을 맞게 되면、對馬부터 江戶까지 안내하면서、교섭이나 조정에 힘쓰며, 외교문장을 마무리 짓고, 시문의 교환 등을 도우며, 사절의 고관과 함께 먼 여행을 했다. 이런 일을 통하여 조선사람들은, 雨森芳洲를 「日本에서 우뚝 뛰어난 사람」으로 존경하였다.

雨森芳洲는,「나라와 나라는 대등하다」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상대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등 모든 형편을 잘 리해하고, 진심으로 사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신념을 언행으로 실행하였던 것이다.

雨森芳洲와 친했던 3 명의 조선사절

사절 중에는, 긴 여행을 함께하면서 雨森芳洲와 친하게 된 사람도 많았다.

1711 년의 사절단중 제술관 李東郭(이동곽)은, 귀국후에도 그리워서 雨森芳洲에게 시를 보내었다. 이 때의 역관이었던 玄德潤(현덕윤)은, 귀국후에도 친교를 계속하여, 외교는「성심」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높은 식견을 함께 하고 있었다. 부산관청에 근무하던 玄德潤은 雨森芳洲를 맞아 자비로 일부 공관을 개축하여,「誠心堂(성심당)」이라 이름을 붙였고, 雨森芳洲가 그와의 두터운 우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日本國會圖書館保存:誠信堂記)

1719 년의 제술관 申維翰(신유한)은, 일본에서의 기행문을 써서, 雨森芳洲와 친하게 나눈 회화의 기록을 남기었다. 귀국 때는, 헤어짐을 아쉬워하며 머리에 쓰는 두건을 선사하였다.

そのころ、実際に朝鮮に渡った人や、朝鮮語ができる学者は雨森芳洲しかありませんでした。

その雨森芳洲が最も活躍したのは、朝鮮通信使が日本を訪れた1711年と1719年のときでした。使節団を迎えると対馬から江戸まで案内し、交渉や調整に努めながら、外交文章をまとめたり、詩文の交換など、使節の高官とともに旅をともにしました。これらを通して朝鮮の人たちは、雨森芳洲を「日本で抜群の人」と尊敬していました。

雨森芳洲は、「国と国は対等である」という考えをもとに、相手の国のことをよく理解し、真心で交わ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信念を身を持って実行したのでした。



使節のなかには、長い旅を共にして雨森芳洲と親しくなった人もたくさんありました。1711年の使節団の製述官李東郭は、帰国したあとも懐かしんで雨森芳洲に詩を贈っています。このときの訳官であった玄徳潤は、帰国後も親交を続け、外交は「誠心」が大切であるという高い認識を共有していました。釜山にあった役所に勤めた玄徳潤は自費で一部の公館を改築し、「誠心堂」と名付け、雨森芳洲がその記録を残しています。

1719年の製述官申維翰は、日本での紀行文を記し、雨森芳洲との親しい会話の記録を残しています。帰国の時、別れを惜しんで頭巾を贈っています。



조선과의 외교에 마음가짐을 설득한 「交隣堤醒」

朝鮮との外交の心得を説いた「交隣堤醒」

긴 세월 조선과의 외교에 바쳐온 雨森芳洲는, 그 바람직한 방법을 「交隣堤醒(고오린테이세이)」라는 책에 기록하고 있다. 그중에서, 첫째는 조선의 력사나 문화、풍속과 습관、지금까지의 일본과의 관계등을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쓰고 있다. 문화의 차이나 취향이 서로 다름을 리해하여야 할 필요성이나, 상대가 헤아려주는 마음가짐 등의 소중함 등, 여러 해 연구한 것과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기록하고 있다.



그리하여 마지막으로 「성심의 사귐」에 관하여,「서로가 속이지 말고, 다투지 말며, 진실하게 사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설득하고 있다. 조선과 대등한 관계의 입장 위에서, 우호를 주장한 雨森芳洲가 아니고서는 들어볼 수 없는 가르침이다.

朝鮮との外交に長年尽した雨森芳洲は、そのあり方を「交隣堤醒」という書に記しています。その中では、第1に朝鮮の歴史や文化、風俗や習慣、これまでの日本との関係などを知っておくことが大切であると書き出しています。

文化の違いや好みの相違を理解していることの必要性や、相手の思いやる心使いなどの大切さなど、長年研究したことや経験したことをもとに記しています。

そして最後に「誠心の交わり」について、「お互いに欺かず、争わず真実を持って交わ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説いています。朝鮮との対等な関係のうえにたって、友好をめざした雨森芳洲ならではの教えといえます。

雨森芳洲를 징검다리로 더욱 깊은 우호관계를 향하여

雨森芳洲を掛け橋に、さらに友好関係をめざし

1990년、일본에 오신 한국의 노테우 대통령은, 궁중 만찬회의 인사말씀에서 「270년전、雨森芳洲는 성의와 신의를 신조로 한일 우호에 힘써 왔습니다」고 소개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또, 2002년 한국을 방문한 小泉(고이즈미)수상은、오찬회의 스피-치에서 「성심의 사귐」의 雨森芳洲의 말을 인용하여, 양국의 외교의 바람직한 방향을 소개하였다. 雨森芳洲의 가르침은, 21세기의 지금까지도 찬란히 빛나며, 양국의 미래의 관계를 밝혀주고 있다.

1990年、日本を訪れた当時の韓国の盧泰愚大統領は、宮中晩餐会のあいさつの中で「270年前、雨森芳洲は誠意と信義を信条としました」と紹介され多くの人に知られることになりました。

また、2002年韓国を訪れた小泉純一郎首相は、昼食会のスピーチで「誠心の交わり」の雨森芳洲の言葉を引用して、両国の外交のあり方を紹介されました。

雨森芳洲の教えは、21世紀のいまでも毅然たる輝きを持って両国の未来の関係を照らしているのです。

雨森芳洲를 기리는 기념관 「雨森芳洲庵」 雨森芳洲を讃える記念館「雨森芳洲庵」

雨森芳洲의 출신지인 滋賀縣(시가켕)의 琵琶湖(비와꼬)의 호숫가 高月町(다까쯔끼읍)에서는, 雨森芳洲의 생애와 업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기념관 「동 아세아교류 하우스雨森芳洲庵(암)」을 건축하여, 조선과의 외교에 바친 雨森芳洲의 생애와,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온 사절로서 거둔 교류의 업적을 알아보기 쉽게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다. 방문한 사람들은 300년전에 조선과의 우호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온 일본인이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며, 새삼스레 그 위대함에 탄복하고 있다. 또, 마을 사람들은 한국 청소년들의 홈스테이 등、雨森芳洲의 정신을 이어받아 풀뿌리(민간) 교류를 계속하고 있다.



雨森芳洲の出身地である滋賀県の琵琶湖の辺・高月町には、雨森芳洲の生涯や業績を多くの人に紹介する記念館「東アジア交流ハウス雨森芳洲庵」が建てられています。そして、朝鮮との外交に尽した生涯や朝鮮通信使のことが分かるように資料を展示しています。

ここには、韓国からも多くの人がおとずれています。訪れた人は、300年前に朝鮮との友好のために尽した日本人がいたことに驚いたり、改めてその偉大さに敬服されています。

また、町の人々は韓国の青少年とのホームステイなど、雨森芳洲の心を受け継いだ草の根の交流を続けているのです。

東アジア交流ハウス雨森芳洲庵

滋賀県長浜市高月町雨森1166番地　TEL/FAX.0749-85-50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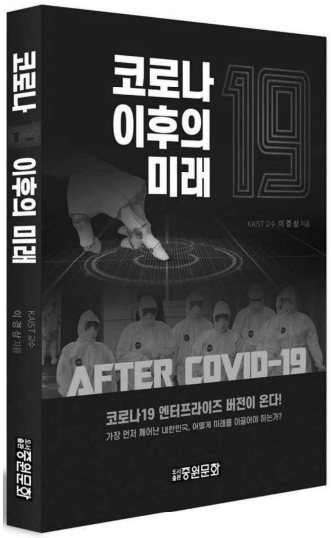
COVID-19以降の未来
グローバルバリューチェーンのパラダイム変化



李 京相教授
KAIST文術未来戦略大学院
godo@kaist.ac.kr

COVID-19以降の未来, 2020年5月

#1 Global Value Chain 再編、 #2 中国発経済のPandem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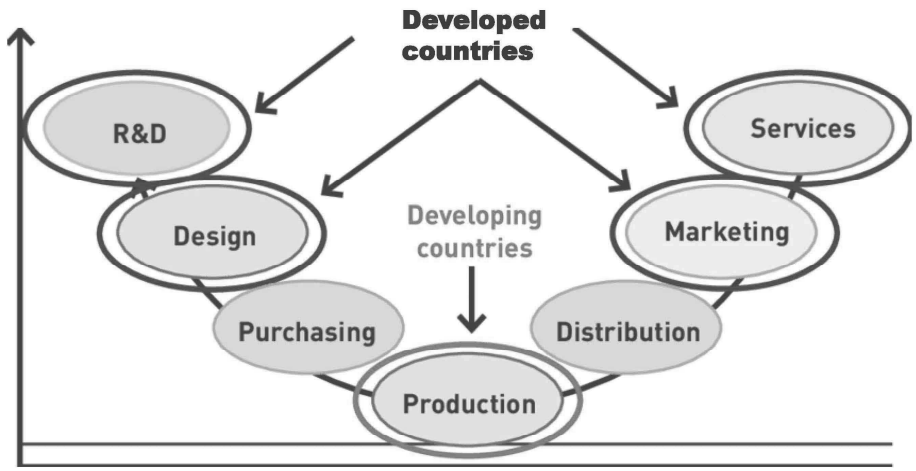
KAIST

2

Copyright@2022 by '이경상'. All rights reserved.

Global Value Chainとは何か？

1990年以降に登場した国家間の生産や貿易ネットワーク。
製品デザイン、原材料の供給、製品生産、市場の流通までの国境を越えた価値の移動に対するグローバル経営の核となる用語



Copyright@2022 by '이경상'. All rights reserved.



I

新冷戦, グローバルサプライチェーンの再編

Copyright@2022 by '이경상'. All rights reserved.

グローバル化の終焉をもたらす中国とロシアの離脱

中国の不透明さと国境閉鎖はグローバルサプライチェーンに大きな衝撃を与えた – CNN, 2020

新型コロナウイルスはグローバル製造のハブとしての中国の終焉をもたらすだろう – Forbes, 2020

COVID-19はより柔軟なサプライチェーンの必要性を証明した – HBR,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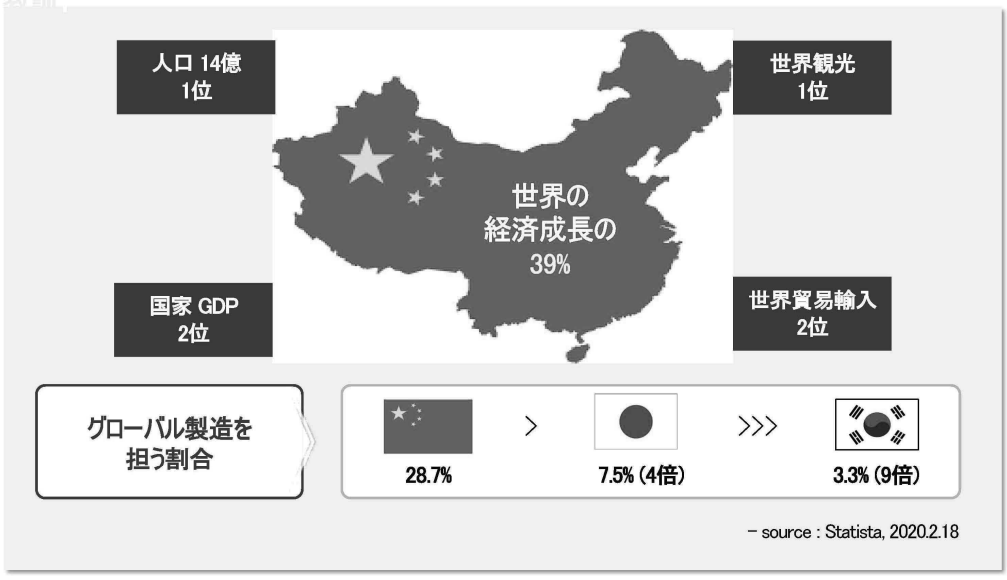
「中国式資本主義は結局資本主義ではないという衝撃的教訓を与えた」
– Wall Street Journal , 2021

「中国共産党のリスクはいつでもグローバル産業分野全体を焦土化できる」
– bloomberg,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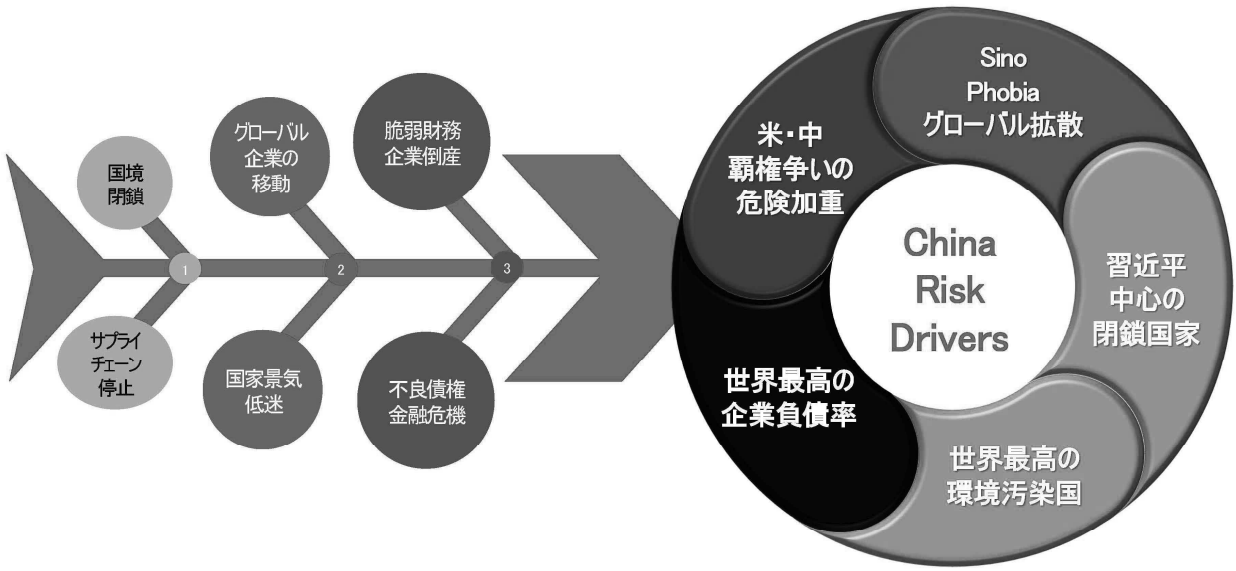
Copyright@2022 by '이경상'. All rights reserved.

GVCにおいて中国は多大な影響力を持つ国家だ!



Copyright@2022 by '이경상'. All rights reserved.

グローバル製造のスーパーハブ国家の地位が沈む!



KAIST 7 Copyright@2022 by '이경상'. All rights reserved.

変化 1 グローバル製造工場、どこへ行くのか?

戦略的代案
メキシコ



メリット: 北米と欧州との地理的近接性

デメリット:政治腐敗と麻薬問題

政治的代案
インド



メリット:世界第2位の人口

デメリット:4階級の社会と富の偏り

地域的代案
アセア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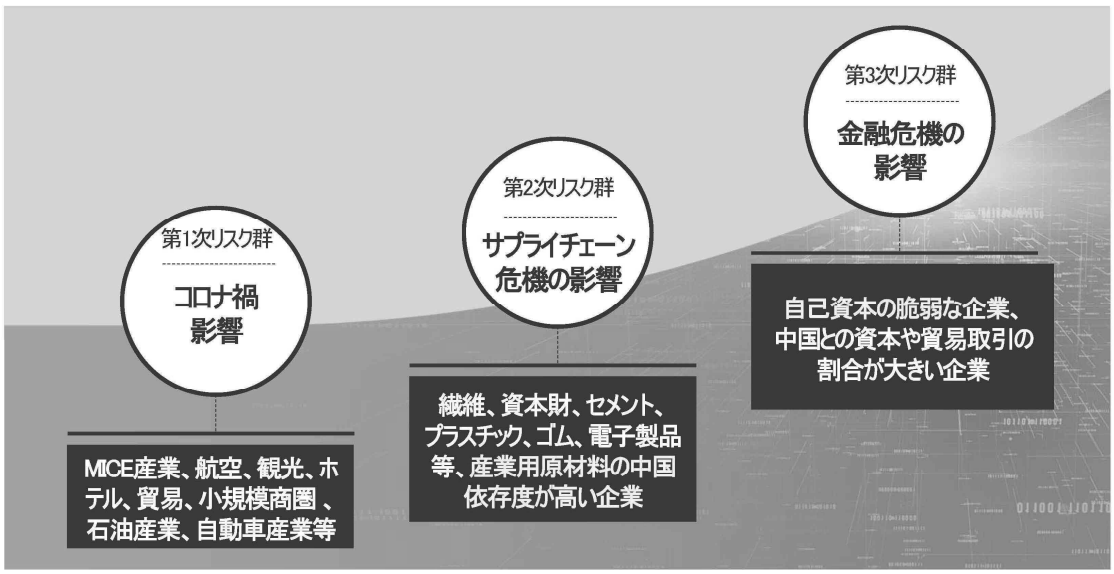


メリット:経済復興への熱気

デメリット:立遅れた産業基盤

KAIST 8 Copyright@2022 by '이경상'. All rights reser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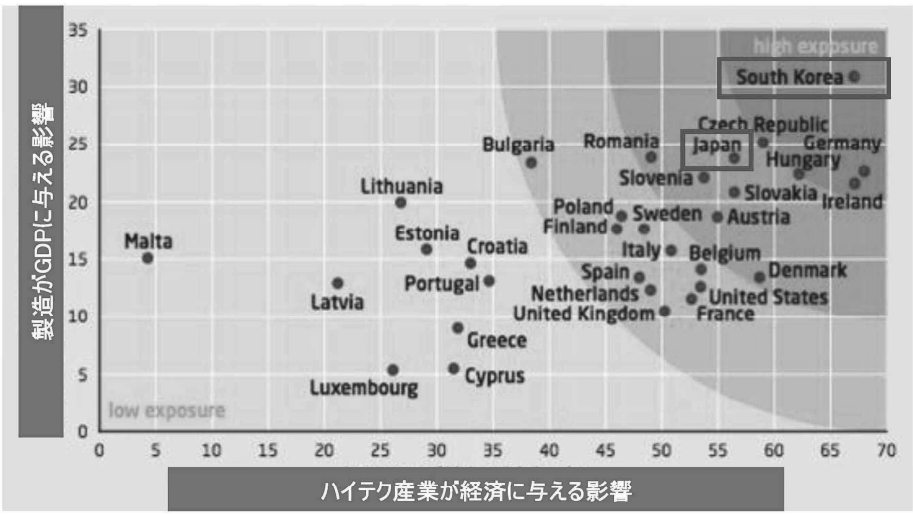
変化 2　今後危機に陥る可能性のある産業は何か？



Copyright@2022 by '이경상'. All rights reserved.

変化 3　中国リスクはチャンスなのか？脅威なのか?

出典: ドイツMERICS、『中国製造2025が与える影響についてのリポート』2016



Copyright@2022 by '이경상'. All rights reserved.





Ⅱ

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規制と循環型経済の登場

KAIST 11 Copyright@2022 by '이경상'. All rights reserved.

CO2発生の国家別ランキング－韓国と日本の脅威

世界のCO $_2$ 排出国上位10位
(総CO $_2$ in Mt) - EU JRC 2020

1.China － 11680.42
2.USA － 4535.30
3.India － 2411.73
4.Russia － 1674.23
5.Japan － 1061.77

6.Iran － 690.24
7.Germany － 636.88
8.Korea － 621.47
9.Saudi Arabia － 588.81
10.Indonesia － 568.27

189ヶ国13,000都市の1人当たりのカーボンフットプリント

順位	都市	国家	人口	Footprint (Mt CO2)
1	Seoul	South Korea	21,254,000	276.1 ±51.8
2	Guangzhou	China	44,309,000	272.0 ±46.2
3	New York	USA	13,648,000	233.5 ±75.4
4	Hong Kong SAR	China	6,029,000	208.5 ±37.8
5	Los Angeles	USA	13,482,000	196.4 ±43.7
6	Shanghai	China	23,804,000	181.0 ±44.6
7	Singapore	Singapore	5,235,000	161.1 ±34.1
8	Chicago	USA	7,260,000	152.9 ±37.2
9	Tokyo/Yokohama	Japan	32,999,000	132.8 ±21.4

KAIST 12 Copyright@2022 by '이경상'. All rights reserved.

循環型経済(Circular Economy)とは何か？

循環型経済は、資源の抽出から産業変換を経て最終消費後に廃棄を行うすべての産業エコシステムの材料や製品の寿命の周期全般にわたり、廃棄物及び汚染除去、製品や材料の循環、自然の再生を目標にした経済システム

直線型リサイクル経済は川下で行なわれるので、循環型経済は川上で決定するものである。

製品の環境影響に対し約80%を決めるのは、設計段階でなされた決定の結果である。



循環型経済の5R

Refuse (拒否)
Reform (再構成)
Reduce (節減)
Reuse (再使用)
Recycle (循環)

Copyright@2022 by '이경상'. All rights reserved.

2022 Samsung, Together for tomorrow

資源の使用を減らし(reduce)、プラスチック素材を置き換え(replace)、製品の部品数を減らした(remove)製品を開発する循環型経済への転換を、革新の最優先課題として採択





Copyright@2022 by '이경상'. All rights reserved.

変化 1 循環型経済の素材革新はサプライチェーンを変化させる



エルメスがスタートアップ企業の MycoWorksと
キノコ由来の「シルバニア」レザーを開発



Ikeaは環境にやさしい包装に向け菌糸体で作った
生分解性の包装材を開発



リンゴの皮で、さまざまな色、模様、質
感をもつ耐久性に優れたレザーを開発



SNACTはバナナの皮で作った、ビニール
に替わる製品を開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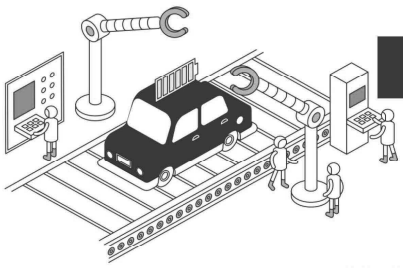
Copyright@2022 by '이경상'. All rights reserved.

変化 2 循環型経済はGVCエコシステムの体系を変える

自動車運送マーケットは全世界で5兆ドル（6,000兆ウォン）



Copyright@2022 by '이경상'. All rights reserved.



「業から界」へ進化、エコシステムに発展する

変化する自動車のエコシステム

中古車 / 自動車 / 保険 / 精油 / 通信 / サービスエリア / 整備 / 廃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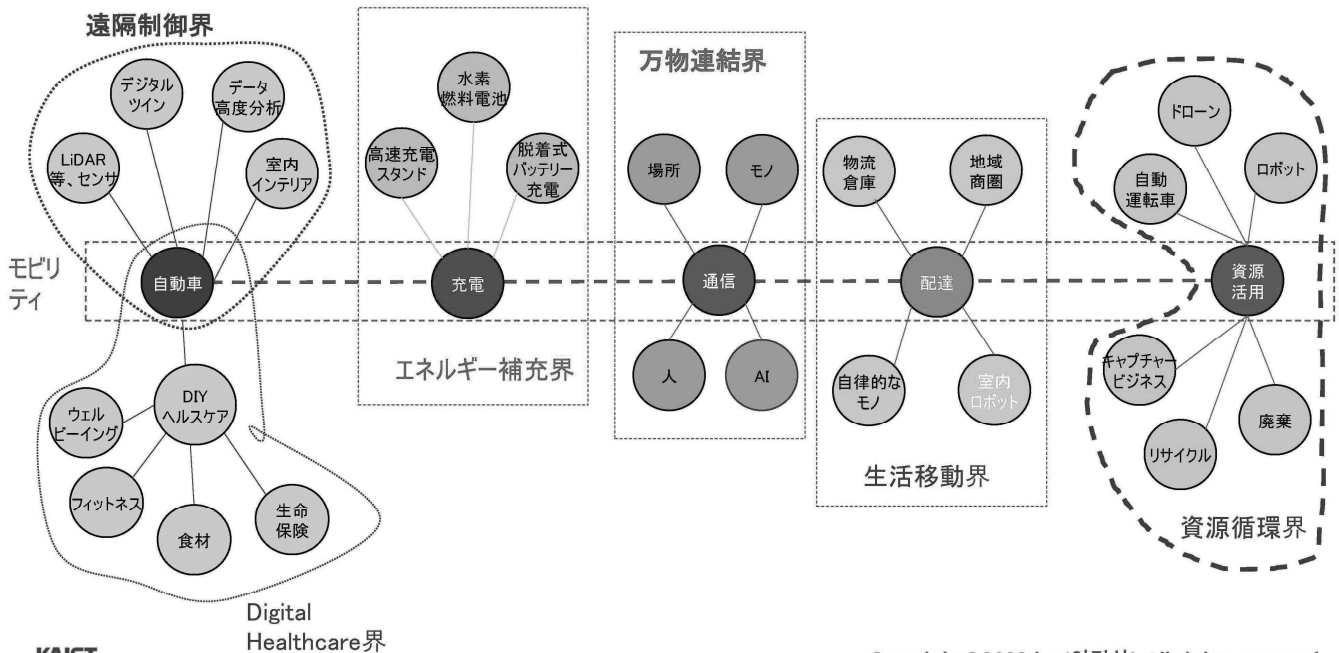




KAIST 17

Copyright@2022 by '이경상'. All rights reserved.

移動界から複雑界に進化するモビリティエコシステム



KAIST 18

Copyright@2022 by '이경상'. All rights reserved.

変化 3　循環型経済は逆物流パラダイムを変える

販売製品の返品

未販売製品の返品

デモ製品の返品

循環型経済のリサイクルのための逆物流



KAIST　19

Copyright@2022 by '이경상'. All rights reserved.

建設用重装備再製造のための革新、Caterpilar

何回でも再製造できる製品を作ることに注力し、最高品質の製品を生産して、より大きな利潤を生みだすことのできる循環型経済の製造革新を完成
全世界の9地域から部品を回収し物流組織に3600人以上の社員を雇用

製品が破損する前に交換して新しい部品と中古部品をとり混ぜて再組立を行うことで、最高品質の部品を生産し続けることができるよう独自の製品設計から革新
コストの35%が間接費で65%が材料費である同種業界において、間接費を抑えることに目標を集中させているライバル社よりはるかに大きい生産性の優位を確保



顧客に新製品コストの50-60%で同一の性能を得ていることを確信させ、教育させることが核となる成功要因のひとつ

Matt Bulley, EAME 製品管理者、専務理事

KAIST　20

Copyright@2022 by '이경상'. All rights reserved.

逆物流(Reverse Logistics)の革新課題

逆物流の効率性の3つの障害要因

1) 返品が地理的に広範囲に分散する

2) 規模の経済不足による非効率性

3) 分類作業は労働集約的で空間が必要

逆物流のデジタルトランスフォーメーションが必要な理由

1)逆物流処理における高い変動性コストを管理

2) 消費者のニーズと不満を返品に連動させて製品を革新

3) 返品された製品の流れに対する可視性的予測基盤の対応体系が必要

Copyright@2022 by '이경상'. All rights reserved.



Ⅲ

GVCの変化に対する対応戦略

Copyright@2022 by '이경상'. All rights reserved.

教訓　COVID-19に学ぶ危機管理方法：3T



Test
（状況認識）

幅広い検査

迅速な調査



Trace
（モニタリング）

精緻な追跡

透明な公開



Treat
（行動）

理解者の協力

状況的戦術

Copyright@2022 by '이경상'. All rights reserved.

戦略1　未来の突発的変化にシナリオで対応せよ!

未来のリスク誘発要因把握
未来を変化させる政治・社会・環境・技術等、コアとなる変化要因は何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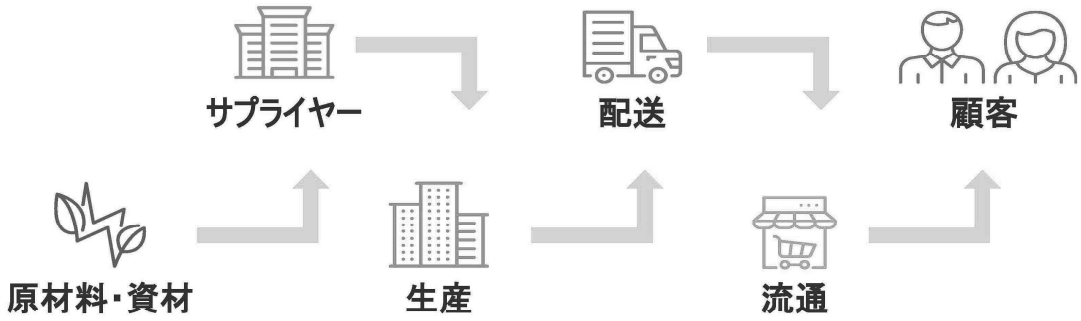
致命的な不確実性把握
我われの産業や会社に致命的な影響を与えるものは何か？

多様なシナリオ開発
その影響はどのように到来し我われはその状況下でどう行動するか？

兆候の予測と行動
データを分析し得られた兆候に合ったシナリオ行動をとるのか?

Copyright@2022 by '이경상'. All rights reserved.

戦略2　先制的で柔軟なGVC管理をせよ!



GVC分散化の先制的対応

原材料資材変化に柔軟対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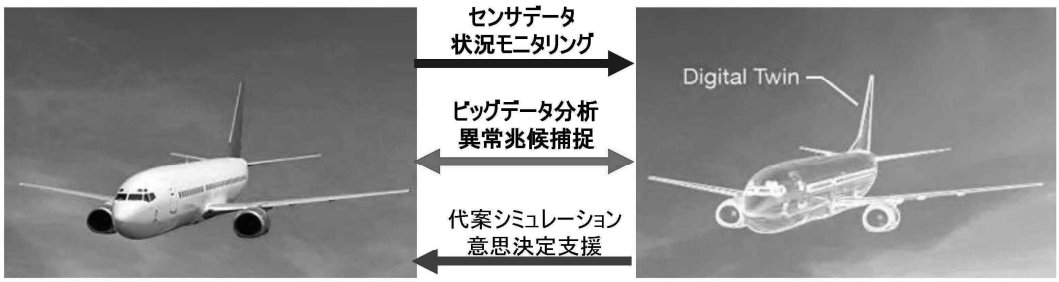
増える物流コストの節減

消費者直販技術の確保

KAIST　25　Copyright@2022 by '이경상'. All rights reserved.

戦略3　Digital Twinで予知力を向上させよ!

デジタルツインはモノの物理的状態と動作をリアルタイムで管理するAI活用技術
Digital Twin =「モノ＋センサ → バーチャル空間 + 人工知能」の連結



「デジタルツインはサプライチェーンの管理技法にとってより魅力的でアクセス可能なオプションになっている。GVC内の全てのパートナー間の緊密な協力はデジタルツインを用いた物流革新に必須だ。」

DHLの革新担当副社長Markus Kückelhaus

KAIST　26　Copyright@2022 by '이경상'. All rights reserved.


Q&A
You have
Questions
We have
Answers

第54回　日韓経済人会議
「日韓経済連携の新たなるステージ」

1

「日韓共同でのエネルギー事業の実現に向けて」
（低炭素社会の実現へのチャレンジ）

2022年5月30日

韓国三菱商事(株)代表理事社長
（SEOUL JAPAN CLUB理事長）
佐藤　利宣

目次

2

Ⅰ. 日韓を取り巻く外的環境
Ⅱ. エネルギー分野における日韓共同課題
　Ⅱ-①　エネルギー依存度、化石燃料比率
　Ⅱ-②　主要国の発電量に占める再エネ比率
　Ⅱ-③　先進諸国と日韓の発電コストの比較
Ⅲ. 日韓脱炭素エネルギー政策の比較
Ⅳ. 将来に向けたエネルギー課題、共同事業の必要性
Ⅴ. 今後の日韓エネルギー共同事業の可能性
　Ⅴ-①　アンモニア大規模サプライチェーンの共同構築
　Ⅴ-②　共同ハブターミナル・船舶構想
　Ⅴ-③　日韓国際送電網の提案
Ⅵ. 最後に

- ソウルジャパンクラブ概要
- 参考資料

Ⅰ. 日本・韓国を取り巻く外的環境

3

国際情勢	環境問題
▶ ロシアのウクライナ侵攻 ▶ 米中競争の激化 ▶ 不確実性を増す北朝鮮動向 ▶ エネルギー価格の高騰 ▶ 世界的な経済の落ち込み	▶ 地球温暖化の進行。 ▶ 世界規模での脱炭素への取組み加速。
同盟関係強化 米韓日関係の見直し	低/脱炭素へのシフト

Ⅱ. エネルギー分野の日韓共通課題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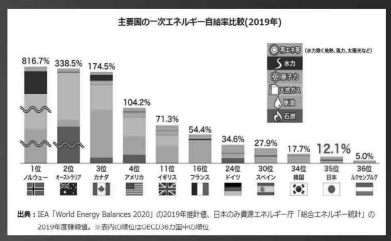
- 高いエネルギー輸入依存度。
- 特に化石燃料使用比率が占める割合が高い。
- 低い再生エネルギー比率、他国と比較して高い再生エネルギー発電コスト。
- 製造業基盤の産業構造下、炭素排出量が多い。
- 経済先進国として、「カーボンネットゼロ」に対する高い責任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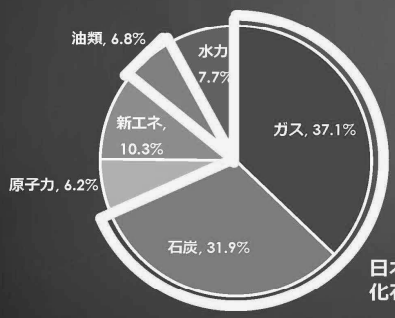
Ⅱ-① エネルギー依存度と化石燃料比率

5

- エネルギー源の輸入依存が高い。
  （日本 87.9%、韓国 82.3%）
- そのうち、韓国は63.5%、日本は75.8%の発電エネルギー源を化石燃料に依存しており、その大半を輸入している。



2021年 日本発電エネルギー源別比率



2021年 韓国発電エネルギー源別比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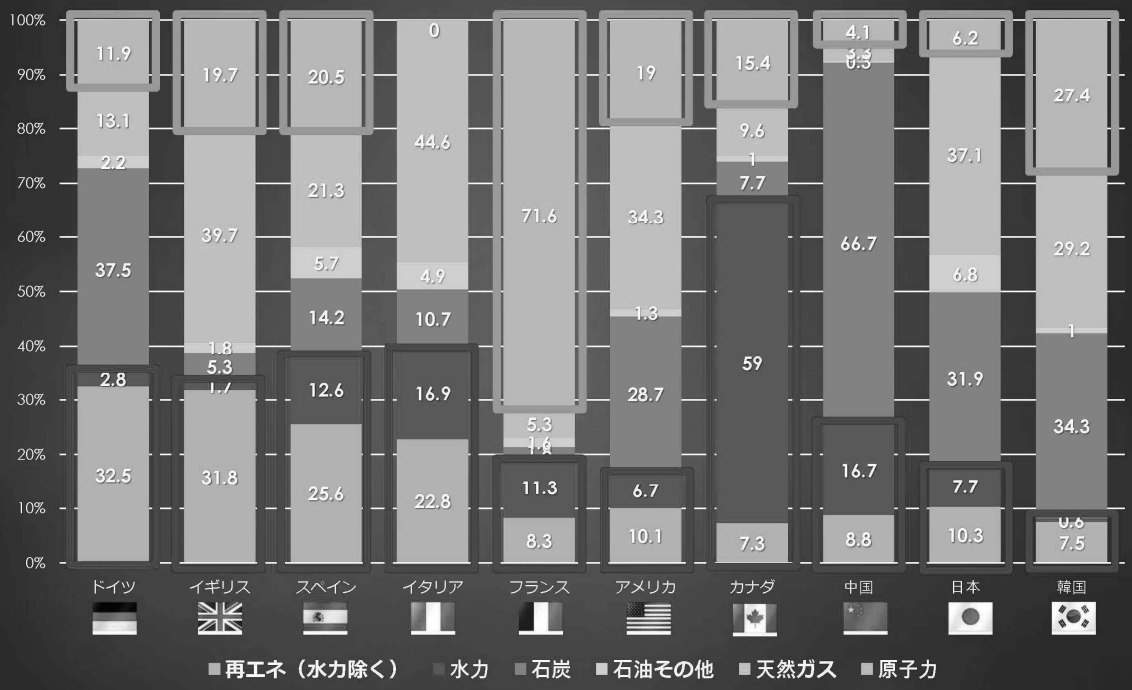


（出所：日本資源エネルギー庁）

Ⅱ-② 主要国の発電量に占める再エネ比率

6

2018年度主要国発電エネルギー源比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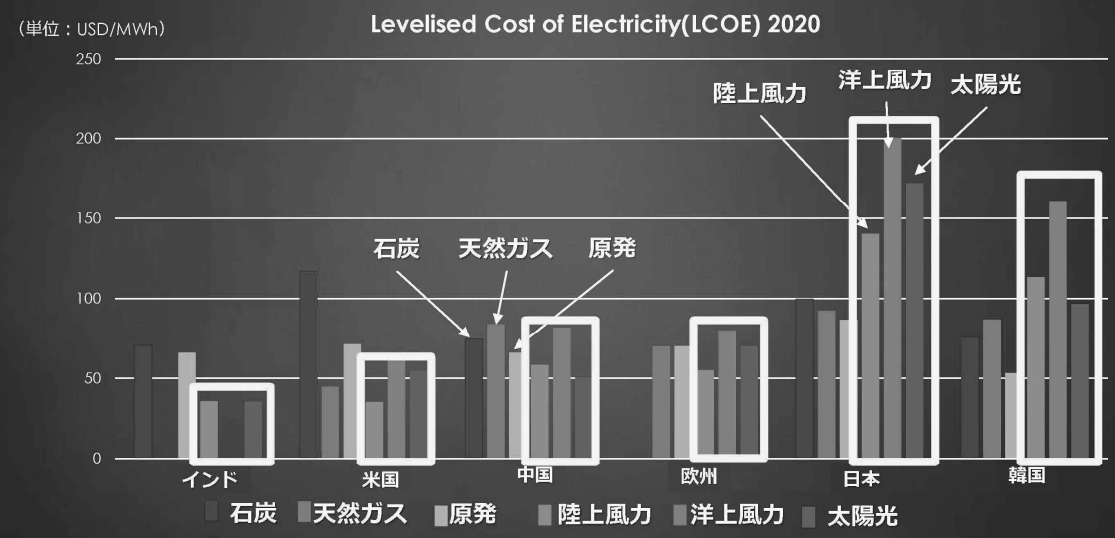


（出所：IEA Data Services 2018 Data）

Ⅱ-③ 先進諸国と日韓の発電コストの比較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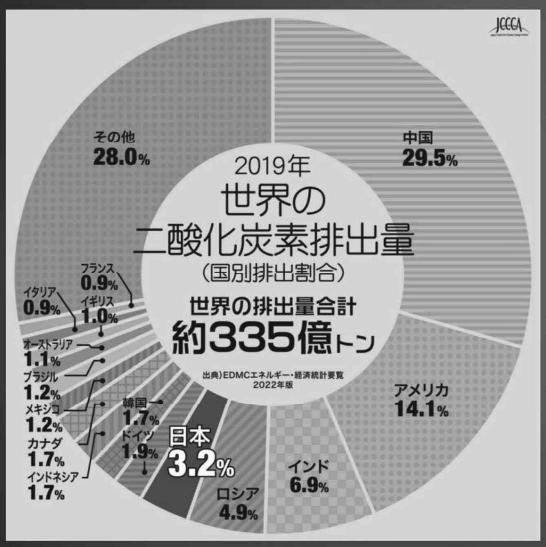
- 先進諸国と比較して圧倒的に高い再生エネルギー発電コスト
- 再エネ生産に向いていない自然環境条件
  （気象条件/地理的制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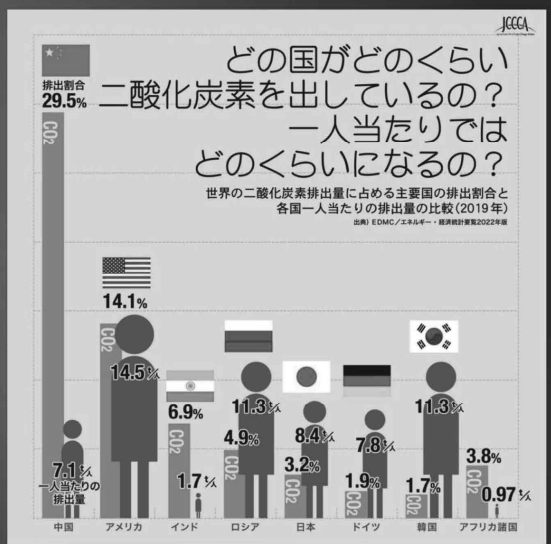


（出所：IEA Projected Cost of Electricity）

（参考）世界のCO2排出数量 (総量・一人当た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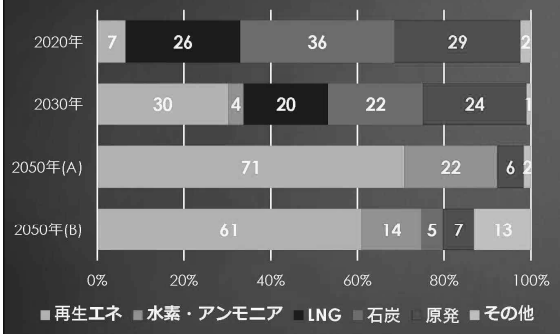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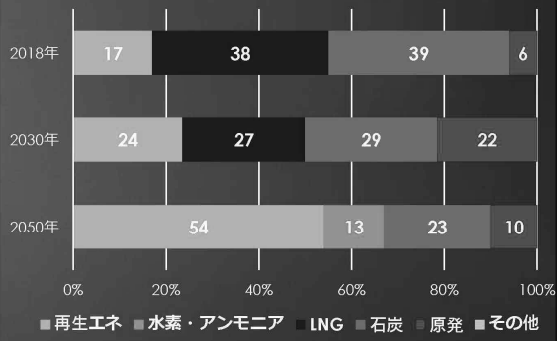
8





Ⅲ. 日韓脱炭素エネルギー政策の比較

9

	韓国	日本
基本方針	• 2050年に炭素中立を実現 • 2030年 NDC：2018年比 CO2 40%削減	• 2050年に炭素中立を実現 • 2030年 NDC：2013年比 CO2 46%
	• 2030年まで急進的に再生E比率を上げる一方、石炭・天然ガス・原発の比率を下げ、2050年に脱炭実現。 • 2050年にはA・Bの二つのシナリオを想定。 • 原子力発電については、前政権方針であった「脱原発」を前提。	• 2030年まで原発と再生E比率を徐々に上げながら、石炭・天然ガスの比率を徐々に減少。 • 2050年の場合、技術開発・情勢変化を踏まえて複数のシナリオを想定。 ※以下の2050年は「参考値」シナリオ
電源構成		
	✓「チャレンジングで野心的な削減目標」（前大統領） ✓ 脱原発政策の見直し（新大統領） ✓ 今秋には、新エネルギー中長期計画発表の予定。	✓ 原子力発電の再稼働が課題。 ✓ アンモニアの混焼など現実的な施策を盛り込む。
	韓国政府発表資料、韓国貿易統計	経産省 (公財)地球環境産業技術研究機構、日本原子力文化財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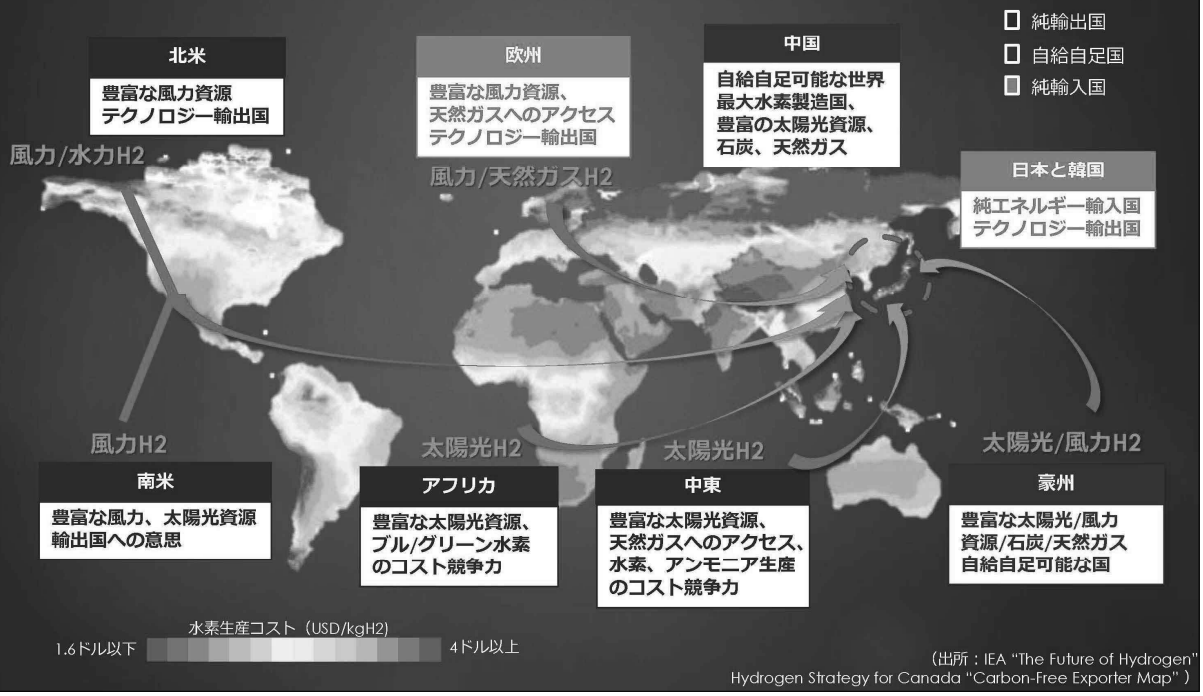
Ⅳ. 日韓エネルギー協力の必要性

10

- これらは両国の共通課題であると同時に、世界的に見ると極めて特殊な環境である。**両国の類似性は世界の特殊性。**
- 一方で将来の脱炭素化に向けては、他の先進諸国と比較しても経済的なハードルが極めて高い。再生エネルギー導入コスト、グリーン水素（アンモニア）生産、運搬、貯蔵コスト。**国際的競争力の劣化。国民生活への負担増。**
- 水素を軸とした低炭素社会を実現するためには、他国とは異なる**新たな大規模エネルギーサプライチェーンの構築と技術革新**が絶対に欠かせない。
- 独自ではなく共同路線により両国の**経済的負荷を低減**させ且つ**早急なエネルギー変革を実現**する。日韓のみならずアジア地域のモデルケースへと展開。

（参考）世界のグリーン水素（アンモニア）主要生産エリア及び生産コスト分布図

11



（出所：IEA "The Future of Hydrogen" Hydrogen Strategy for Canada "Carbon-Free Exporter Map" ）

V-①今後の日韓エネルギー共同事業の可能性
～アンモニア大規模サプライチェーンの共同構築～

12

化石燃料代替は究極的には**水素エネルギーへの転換**と言われるが、現実的な段階的移行燃料として注目されているのが**アンモニア**である。
水素社会の本格的な導入の前段として、アンモニアの石炭混焼という**日韓固有のニッチなステップ**を協力して経ることで、新たに構築しなくてはいけない水素のサプライチェーンに最終的に繋がることにな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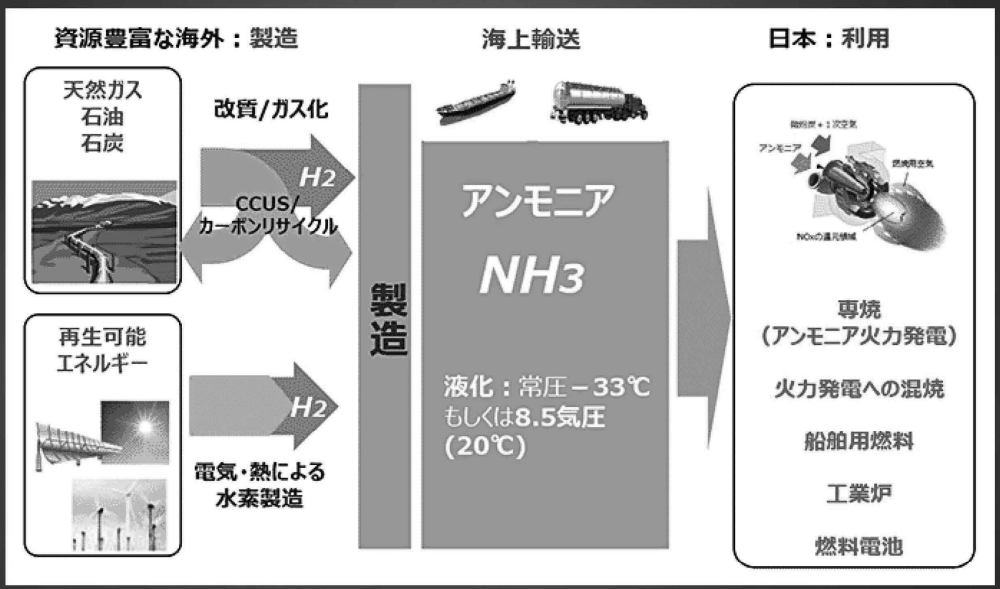
- アンモニアは、CO_2を排出せずに天然ガスや再生可能エネルギー等から製造することが可能（燃焼してもCO_2を排出しない）
- 更にアンモニアは、水素キャリアとしても活用でき、また（水素に変換せずとも）燃料として直接利用も可能。水素と比べ、既存インフラを活用することで、安価に製造・利用できることが特長。

日韓共同のアンモニアサプライチェーンの構想

需要	生産	輸送	貯蔵	使用
発電	天然ガス（CCUS）	共同建造（ULGC）	共同貯蔵 Hub Terminal	混焼/専焼
水素	再エネ（水電解）	共同運営	日韓輸送（SWAP）	水素生産
化学製品	日韓で協力可能な分野			

（参考）燃料アンモニア利用の概略

13



（出所：資源エネルギー庁）

（参考）水素発電、アンモニア発電コスト比較

14

	水素発電（2020年時点試算）		アンモニア発電（2018年時点試算）	
製造	海外水素製造 （天然ガス＋CO_2販売（EOR用途）） **11.5**円/Nm3		海外水素製造 （天然ガス＋CO_2販売（EOR用途）） **11.5**円/Nm3（＝201ドル/トン） 海外アンモニア製造 **4.3**円/Nm3（＝76ドル/トン）	
輸送	水素輸入 （ローリー輸送＋液化＋積荷＋海上輸送） **162**円／Nm3*		アンモニア輸入 （積荷＋海上輸送） **2.3**円/ Nm3（＝40ドル/トン）	
発電	水素発電機 **7万～9万円**/kW**		アンモニア専焼設備 **46万円**/kW	（参考）アンモニア混焼設備 **29万円**/kW
発電コスト	**専焼** **97.3円/kWh***	熱量ベース **（参考）10%混焼** **20.9円/kWh***	**専焼** **23.5円/kWh**	**（参考）20%混焼** **12.9円/kW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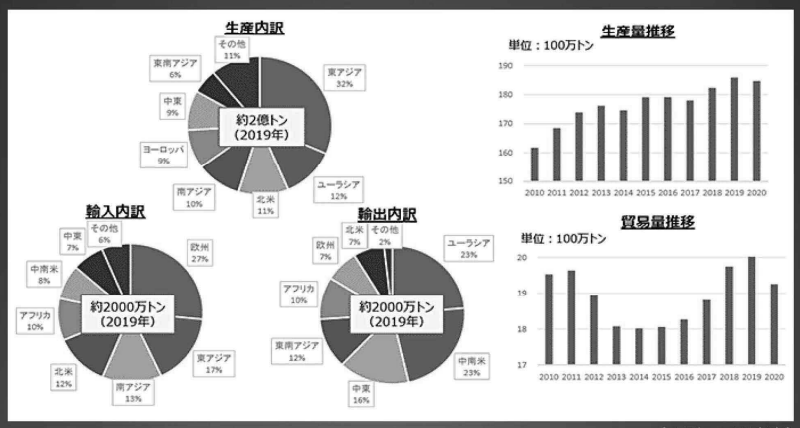
（出典）
* 事業者ヒアリングに基づき試算
** 富士経済「2020年版水素利用市場の将来展望」水素ガスタービン発電
***発電コスト検証WGより試算

（出典）
- アンモニア製造・輸入コスト：日本エネルギー経済研究所 SIP「CCS・EOR技術を軸としたCO2フリーアンモニアの事業性評価」をもとに資源エネルギー庁試算
- アンモニア混焼設備、発電コスト価格：電源開発SIP「火力発電燃料としてのCO２フリーアンモニアサプライチェーンの技術検討」
- アンモニア専焼設備、発電コスト：事業者へのヒアリング等をもとに資源エネルギー庁試算

（出所：資源エネルギー庁）

（参考）アンモニアの市場規模

15



（出所：三菱商事）

【韓国におけるアンモニアと水素需要予想　」

日本のアンモニア需要予想は2030年300万トン、2050年3000万トン



（出所：みずほ銀行）

（参考）エネルギーサプライチェーン構築の実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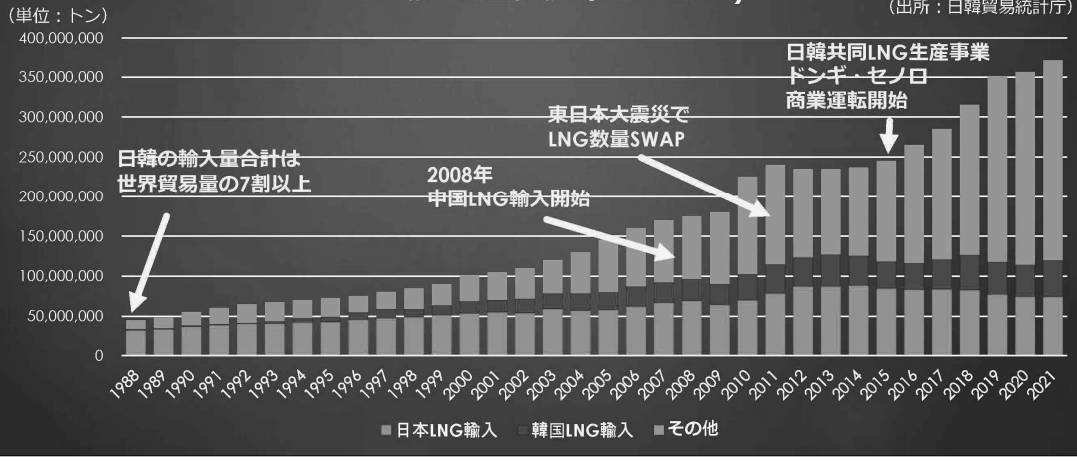
16

- 日韓LNG事業
  - 1969年 日本で初めてアラスカ産LNGを受け入れ。
  - 1970年 世界初のLNG専焼火力発電所が日本で稼働。
  - 1986年 韓国でのLNGの輸入を開始。
  - 2011年 日韓初LNG共同プロジェクト締結、2015年出荷開始。



LNG輸入数量推移（1988~2021）

（出所：日韓貿易統計庁）



（参考）日韓エネルギー共同事業の事例

17

インドネシア・LNG共同開発 ドンギ・スノロ事業

- ✓ 天然ガスを開発・生産する上流事業と、天然ガスからLNGを生産する中流事業から構成。上流・中流事業共に、尼国Pertamina社、尼国Medco社と共に、韓国ガス公社(Kogas)及び三菱商事が参画。中流事業においては、Kogasと三菱商事の合弁会社が最大シェアを有する世界初のオールアジアLNG事業である
- ✓ 2011年1月に最終投資決定を行い、2015年8月にLNG第一船を出荷。現在は年間200万トン超のLNGを生産し、日本及び韓国に出荷している



LNGプラントサイト

上流事業(Senoro-Toili PSC)

Tomori E&P社	20%
（三菱商事/KOGAS）	
尼Pertamina社	50%
尼Medco社	30%

他上流事業

中流事業 (Donggi-Senoro LNG)

Sulawesi LNG Development社	59.9%
（三菱商事/KOGAS）	
尼Pertamina社	29.0%
尼Medco社	11.1%

130万ﾄﾝ

2021年輸入量：7,400万ﾄﾝ
世界第2位

70万ﾄ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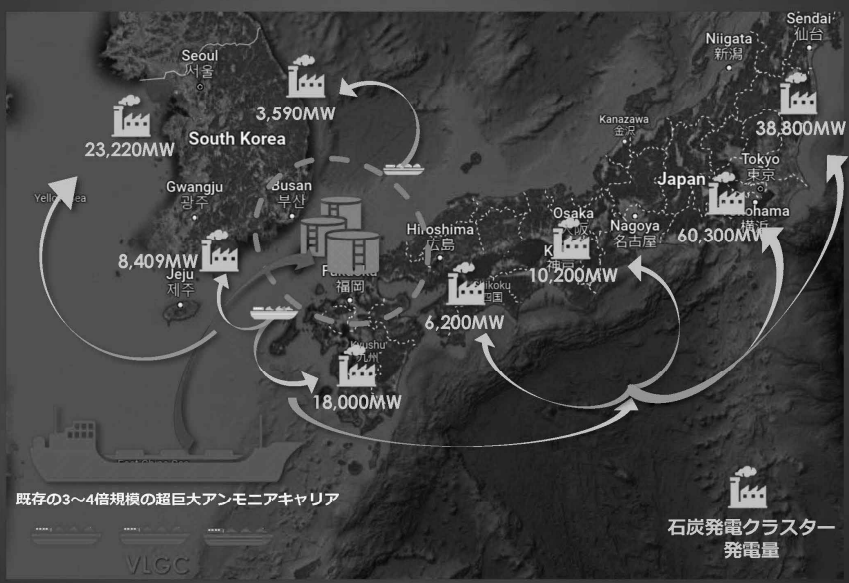
2021年輸入量:4,600万ﾄﾝ
世界第3位



V-② 今後の日韓エネルギー共同事業の可能性
~共同ハブターミナル・船舶構想~

18

- ▶ 日韓共同で既存のVLGC（Very Large Gas Carrier）3～4倍規模のULGC（Ultra Large Gas Carrier）を建造・運営
- ▶ 共同ハブターミナルから各需要地へ内航船転送。



Ⅴ-③ 今後の日韓エネルギー共同事業の可能性
~二国間国際送電線（網）プロジェクト構想~

19

欧州ENTSO-Eのような**日韓における国際連携電力線（網）**を構築。
主なメリットは下記の通り。

- 経済合理性。
- 安定供給。需給バランスの均衡への寄与。
- 緊急時電源のバックアップ。
- 自然エネルギー導入を側面サポー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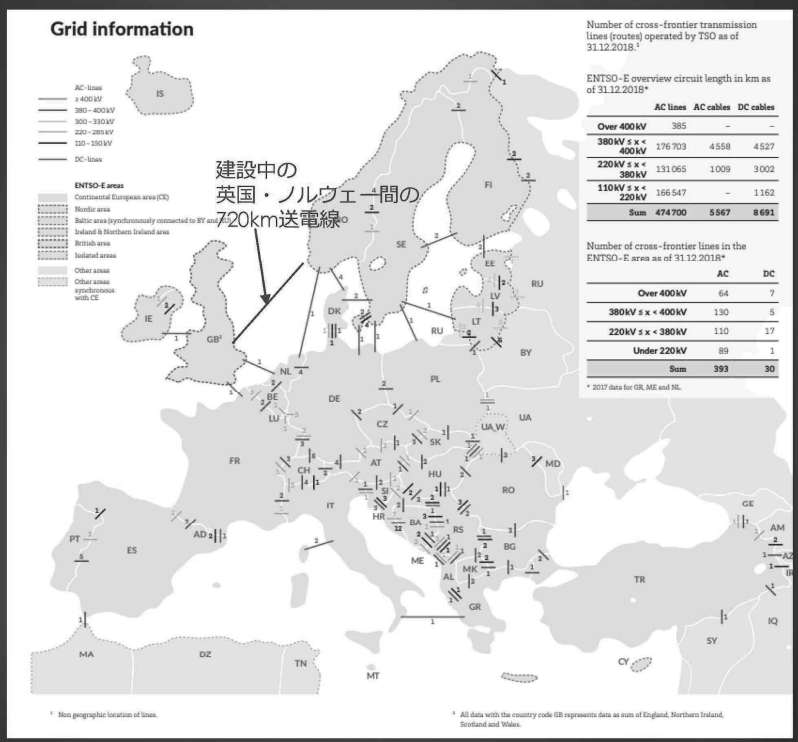
＊両国ともに将来的には、自然エネルギーの拡充を目標として掲げており、国際連系線の設置は、自然エネルギーの弱点（発電量をコントロールできない。現状、蓄電が難しい。）を補完するのに効果的である。



（出所：アジア国際送電網研究会）

「ENTOS-E」

20



（出所：ENTSO_E Statistical Fact 2018 ）

「アジア国際送電網計画」

21

- アジア各地に豊富に存在する太陽光、風力、水力などの自然エネルギー資源を相互に活用できるようにするため、各国を結ぶ国際的な送電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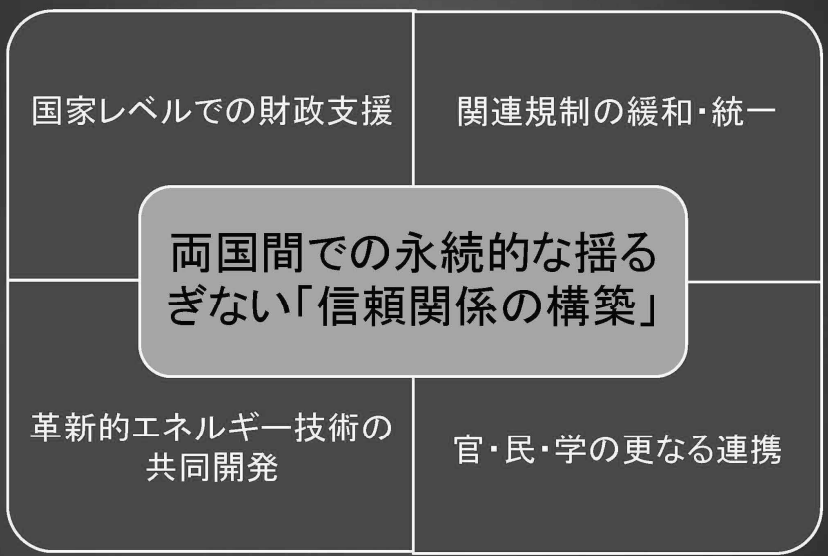


（出所：自然エネルギー財団）

VI.　最後に

22

エネルギー共同事業に必要不可欠なものとは、、、



ソウルジャパンクラブ(SJC)

23

1997年に3つの日系機関が統合して発足。韓国内最大級の日系コミュニティ。

日本人会（1966年設立）
日本商工会（1967年設立）
JV会（1972年設立）
→ ソウルジャパンクラブ（SJC）（1997年設立）

会員数（現在）
法人　約350社
個人　約1300人

活動目的
・会員相互の親睦ならびに啓発、福祉の向上
・日韓両国の親善、韓国社会への貢献
・日韓両国の経済関係の円滑な発展の支援




個人活動サポート
- 安全対策
- 日本人学校の運営支援
- 日韓交流の支援・協力
- ボランティア活動
- 教養文化セミナー
- 名勝探訪
- 文化行事・スポーツ大会
- 公認クラブ活動





法人活動サポート
- 会員企業間の情報交換・懇談
- 韓国政府への建議事項提出
- 経営セミナー・勉強会
- 各種情報・資料提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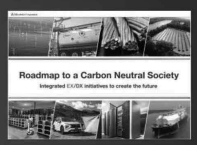


（参考）三菱商事の脱炭素化に向けた取り組み事例

24

- 燃料アンモニア製造に向けた米国Denbury社との二酸化炭素輸送、貯留に合意
- カナダ アルバータ州における水素製造に向けた覚書締結
- インドネシアにおけるクリーン燃料アンモニア生産のためのCCS共同調査の覚書締結
- 三菱商事が参画、総事業費3300億円超の「グリーン水素」製造事業
- 本邦洋上風力発電事業における 国内・地域サプライチェーン構築と地域の活性化に繋がる共生策
- 革新的な脱炭素技術の社会実装を加速させるBreakthrough Energy Catalystへの参画
- 持続可能な航空燃料(SAF)の社会実装に向けた事業化検討
- 三菱商事とローソン、国内最大級オフサイトPPAによる再エネをローソン店舗へ供給
- 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メタンのサプライチェーン構築に向けた北米、豪州等における事業可能性調査の開始








大韓商工会議所

日韓経済界レベルの協力:
日韓若年人材プラットフォームの構築

大韓商工会議所　地域人的資源開発チーム

パク・ギテ(朴基兌) 責任研究員

目次

1. 発表の背景
2. 労働市場の日韓比較
3. 日韓の若年労働市場の懸案
4. 日本における IT人材不足
5. 日本における韓国人材の就業(現状と可能性)
6. 現在活用中の人材交流プラットフォームとその限界
7. 両国経済界の協力による人材交流プラットフォームの構築

1 発表の背景

- 大韓商工会議所のチェ・テウォン会頭の基調講演(2021年第53回日韓経済人会議)
  - **両国の経済界が協力プラットフォームを構築して社会問題の解決を図り、中長期的には両国関係の修復に貢献**
  - **日韓の抱える非共通の問題は、相手国の強みを活かして解決を図る(例:就職問題)**
- 大韓商工会議所「新政権発足後の日韓関係の展望」調査

(韓国企業327社を対象、22/4/21)

  - 日韓の協力分野の中で**「若者の就業など人的交流の活性化」**(19.0%)を二番目として挙げた(一番目「半導体など供給網の再編に伴う協力」(48.3%))

대한상공회의소

1 発表の背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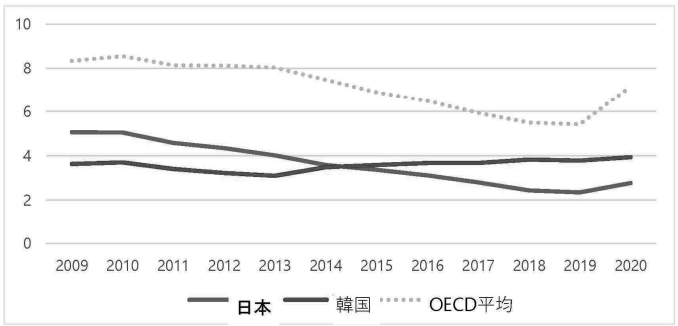
- **若年就業の問題は両国共通のイシュー**
- 日韓其々の労働市場におけるミスマッチには質的な相違が在る。
- 共通点もあり、非共通点もある**若年労働市場のイシューは相手国の強みを活かして解決することが望ましい。**
- **両国経済界の協力を通じて優れた人材が人材不足の国へ移動できるようにするプラットフォームを構築し、若年就業問題の解決が必要なタイミング。**

대한상공회의소

2 労働市場の日韓比較

- 失業率(15-64歳)
  - 両国ともOECDの平均より低い。
  - **国内外の経済状況の変化により2015年以降逆転(韓国>日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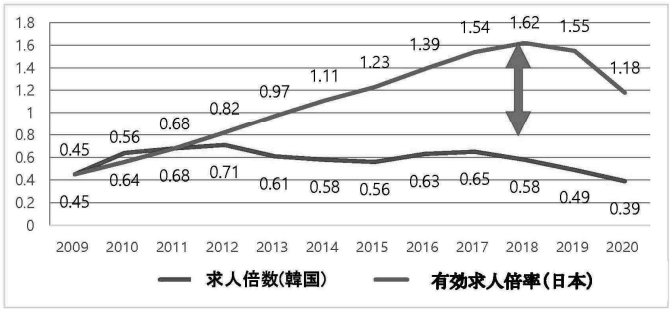
失業率(15-64歳)



2 労働市場の日韓比較

- 両国其々の労働市場において**需給ギャップが拡大**
  - 求職難の深化(韓国) vs. 求人難の深化(日本)
- 両国の労働市場の需給指標間のギャップが拡大
- **韓国 →日本への人材移動を通じて両国の雇用問題解消の端緒を提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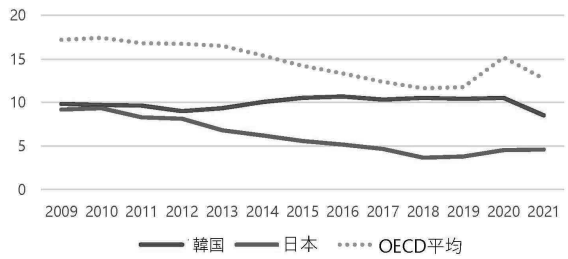
求人倍数(韓国)/有効求人倍率(日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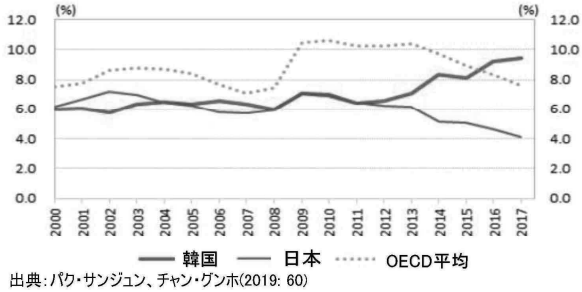
2 若年労働市場の日韓比較

- 若年失業率
  - 韓国:グローバル金融危機以降、キープ又は**継続的上昇**(25-29歳)
    最近、20代後半の若年失業率はOECDの平均を上回る
  - 日本:グローバル金融危機以降、下がり続けて**過去最低の水準**
  - 韓国の若年失業率は日本の2倍以上

<15-24歳の若年失業率>



<25-29歳の若年失業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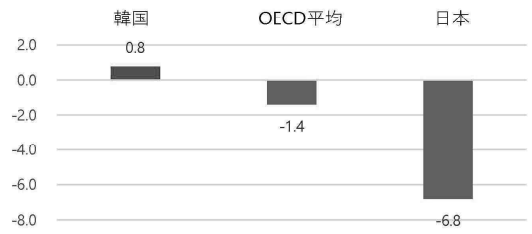


出典:パク・サンジュン、チャン・グンホ(2019: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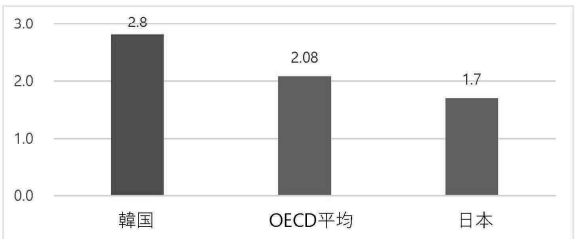
2 若年労働市場の日韓比較

- 若年失業率の上昇速度
  - 韓国>OECD平均>日本
  - **韓国:若年失業の継続的増加**
  - **日本: 若年失業の大幅低下**
- 若年失業率の平均倍率
  - **韓国>OECD平均>日本**
  - 韓国の若年失業率は全体の失業率の2.8倍
  - 日本の若年失業率は全体の失業率の1.7倍

<若年失業率の上昇速度(2010-2020, 15-24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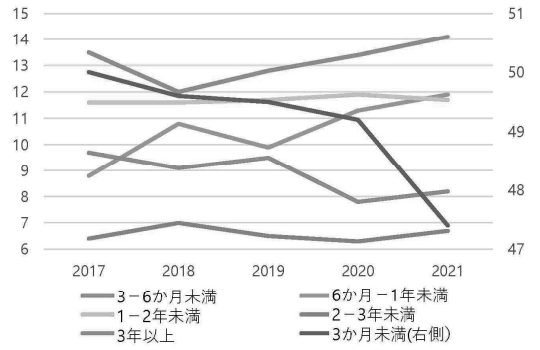
<若年失業率の平均倍率 (2010-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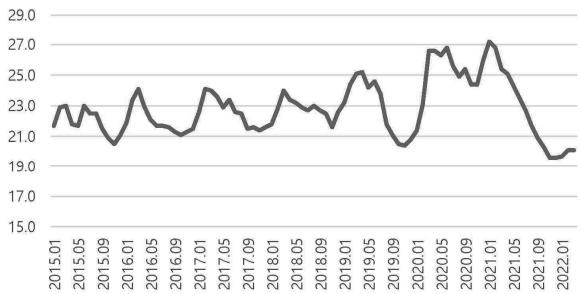
3 韓国の若年労働市場の懸案

- 就業難と失業の長期化
  - ・卒業後、就職を見合わせたり新たな職業訓練を受けるなどして初就職までの期間が伸びている。
- 定型労働や経済活動に就いていない若者が増加
  - 若年層の約1/4が準失業状態

初就業までの所要時間



若年の拡張失業率(韓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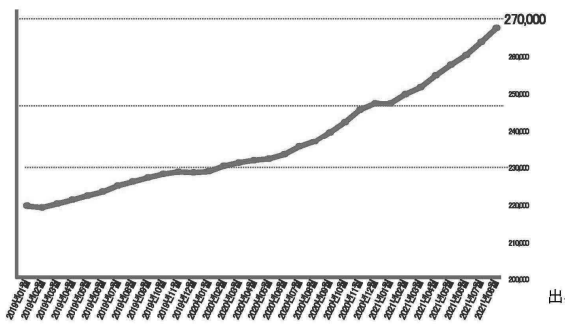


若年の拡張失業率＝(不完全就業者+失業者+潜在的経済活動人口)/拡張経済活動人口×100

3 韓国の若年労働市場の懸案

- **第4次産業革命やCOVID-19に伴う産業構造の変化によりICT分野で人材の需要が急増 → 若年層にチャンス**
  - 政府と民間企業はICT人材の供給拡大に焦点 → 良質の人材が多数輩出
  - 賃金上昇など雇用の質が改善 → 海外就業のインセンティブ低下の可能性

ソウル地域のIT-SW分野の雇用の変化 (単位:名)



出典:ソウル地域人的資源開発委員会

3 日本の若年労働市場の懸案

• 企業の求人難が深化

▪アベノミクスの影響による経済の活況

- 円安基調により日本の商品の需要が拡大し、輸出が増加
- 企業の収益拡大により採用が拡大

• 人口構造の変動により若年人口が減少

- 団塊の世代のリタイアや少子化により若年人口が減少。若年対象の雇用市場が改善
- 「現在、日本で見られる若年雇用をめぐる状況は改善されており、職業の安定性も良くなっている。」(東京大学、川口大司教授)

3 日本の若年労働市場の懸案

• 若者世代が布陣するICT分野では人材不足

• 「日本はフィンテック、ビッグデータ、情報セキュリティへの投資は多いが、エンジニア不足であるため企業は外国の人材を探している。」

日本経済新聞(21/09/26)	日本経済産業省
• 日本のIT専門家の数は世界4位の122万人(総務省及びILO) • 人材の質が問題点として指摘 ▪IT人材の90%がHPやアプリを開発する従来型人材(経済産業省、2018) • AI、IoT関連の先端IT人材は10%に過ぎない • 2014-2018年、理工系の卒業者数は年平均0.4%減少	• IT人材の供給は減るが、需要は伸びると予想 • 2030年には78万9000人のIT人材が不足すると予測 • 最近、クラウドコンピューティングとビッグデータに対する需要が増加 • COVID-19により在宅勤務が増えたことで一般企業においてもIT担当者の業務が急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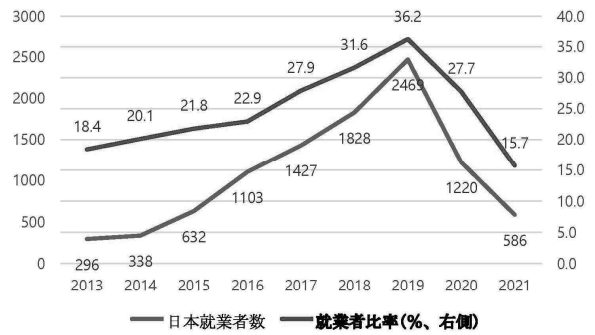
4 日本におけるIT人材不足

- COVID-19以降、**デジタル・トランスフォーメーション**(DT: digital transformation)**分野の求人需要が増えて人手不足**
- 日本厚生労働省(21/01/29)
  - **ITエンジニアなど、企業のデジタル・トランスフォーメーション戦略に必要な職種では継続的な求人需要が存在。**
  - 情報処理・通信技術分野の2021年1月時点の有効求人倍率は1.89。
  - デジタル・トランスフォーメーション分野の有効求人倍率は 5.53倍
    (民間HR大手企業 Persol Career)

5 日本における韓国人材の就業の現状

- 日本における韓国国籍の就業者数の変化
  - **韓国国籍者の海外就業において日本は最も高い割合を占める国。**
  - 2013年以降、継続的に増加。
  - COVID-19で交流が途絶えてから減少傾向

韓国人の日本就業者数および就業者比率(2013-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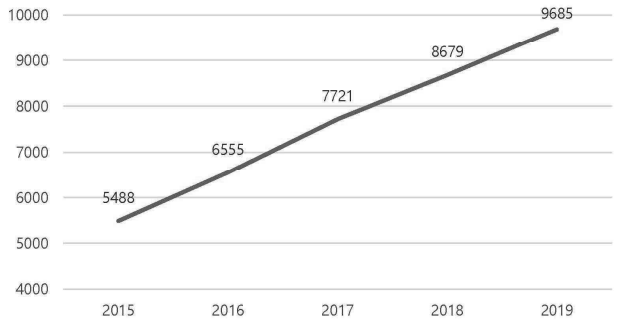


出典：韓国産業人力公団

5 日本における韓国人材の就業の現状(情報通信産業)

- 韓国人の日本での就業先は、およそ半分がICT分野
  (韓国産業人力公団　海外就業局)
  - 日本で就業した韓国人のうち、65.7%がIT職種(韓国貿易協会　東京支部)
- 日本における韓国国籍のIT産業従事者数が急増

日本のIT産業における韓国国籍の従事者数



出典:日本厚生労働省

5 日本における韓国人材の就業の可能性

- 日本におけるICT人材の需要 + 韓国の若年人材の資質(ICT技術、語学力、グローバル志向) → 高い就業可能性
- 韓国におけるICT人材の需要急増や雇用の質的改善をうけて、韓国人材の日本就業のインセンティブ低下を考慮する必要がある。
- 韓国の労働市場のpush factors + 日本の労働市場のpull factorsを最大化する方策をさぐる必要がある。

6 現在活用中の人材交流プラットフォーム

- 韓国政府は関連省庁や関係機関の海外進出プログラムを統合してK-Moveセンターを構築
  - ワールド・ジョブ(www.worldjob.or.kr)は職務経歴が豊富で、外国語能力が高い人が就業先を見つけ易いようにワン・ストップ・サービスを提供。
- 韓国産業人力公団、KOTRA、韓国貿易協会(東京支部)などで日本での就業に役立つニュースを提供。
- 民間機関であるインクルート、ジョブ・コリア、建設ワーカー、メディア・ジョブ、キャリア、サラム・イン、ジョブ・トゥゲザー、同胞経済人団体の世界韓人貿易協会(OKTA)などを活用できる。

대한상공회의소

6 現在活用中の人材交流プラットフォームの限界

- **日本に特化された情報体系が不足**
  - K-Moveサイトは日本や他の国の就業情報を1か所で提供
  - ICT分野の場合、開発コミュニティ・サイトを通じての海外就業も可能。
- **K-Moveを通じた就業の限界**
  - 本人の希望に反する仕事を斡旋される雇用のミスマッチが発生。
  - 海外インターンシップ事業に参加している企業のうち、純粋な外国企業は少数。
- **日本のIT企業への就業をサポートする機関が多数**
  - 就業支援金や就業率向上が目当ての場合もある。
  - 雇用の質の問題:修了後、韓国系の中小のSIなどに就職

대한상공회의소

7 両国経済界の協力による人材交流プラットフォームの構築

- 企業のニーズなど、人材供給に関するすべての情報を一か所に集め、両国の**若年人材のミスマッチを解消**できるように経済界と政府が努力する必要がある。
  - **韓国の経済界/大韓商工会議所：日本の経済界/日本商工会議所と連携して日本企業の人材ニーズに関する情報を収集し、韓国内に配信する情報ゲートウェイの役割を遂行。**

7 両国経済界の協力による人材交流プラットフォームの構築

- **ICT技術の発展や海外就業のインセンティブ低下を考慮して新しい人材交流プラットフォームを模索する必要がある。**
  - COVID-19以降のITブームにより韓国内での人材需要が高まり、海外就業の強みが低下 → 如何に人材交流を増やすか?
  - ICT技術の発展に伴い、オンラインによるリモート勤務方式の人材交流プラットフォームを構築



大韓商工会議所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